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Lives of the Stoics · Chapter 23 MUSONIUS RUFUS THE UNBREAKABLE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Ryan Holiday & Stephen Hanselman, Lives of the Stoics — 「Musonius Rufus the Unbreakable」 (원서 PDF 164~172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8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에게 끝까지 남는 것은 무엇인가."

카토가 끝내 맞선 황제는 한 명뿐이었지만, 무소니우스 루푸스는 세 번, 어쩌면 네 번 고향에서 쫓겨났다. '로마의 소크라테스'라 불린 그는 박수가 아니라 침묵을 좋은 강의의 표시로 여겼고, 1세기 로마에서 여성도 남성만큼 교육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마른 유배의 섬에서는 땅속 샘을 찾아 이웃 유배자들을 도왔다고 전해지고, 해방 노예에게나 왕에게나 같은 가르침을 전했다. 고난은 피할 수 없으니 덕을 향해 고생하라는 것이 그의 가르침의 핵심이었다. 공부도 그렇다. 어차피 힘들 거라면 점수를 흉내 내는 데가 아니라 실력이 되는 데 힘을 써야 한다. 이 노트는 여덟 쪽의 본문을 여덟 유닛과 열여섯 문항으로 자른다. 박수 대신 침묵 속에서, 네 손으로 근거를 찾으며 읽어라.

학교		학년·반		이름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20장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전자책이라 인쇄 쪽 번호가 없음).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시·대화·책 목록)은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덕을 향해 고생하라(166쪽 ¶5~¶7) / 여성도 철학을 배워야 한다(165쪽 ¶7 ~ 166쪽 ¶2) / 역경은 스스로 택하면 나를 낫게 한다(168쪽 ¶2~¶5)
4~5	**밑줄 함축 의미**	a flute player performing / a marrow-deep commitment / cut from the same cloth as Cleanthes / a marked man / the capriciousness of fate / a kind of test / that rock-hard, unbreakable citadel of a soul / When the student is ready, the teacher appears / Money is exactly what he deserves / played no favorites / make the best of a bad situation / dies not late but well / his number was up
6	지칭 추론	he·him이 Musonius·Socrates·Apollonius 사이를 오가는 167쪽 ¶8 / it = 여성 교육이라는 견해(166쪽 ¶2) / him(a marked man = Plautus, 167쪽 ¶2) / he(he deserves = 사기꾼, 169쪽 ¶4) / him(Musonius told him = 시리아 왕, 171쪽 ¶1) / He(murdered = Domitian, 171쪽 ¶4)
7~8	내용 일치·불일치	플라우투스와 기아로스(167쪽 ¶2~¶3: 60 AD 시리아 · 아마 임종 자리 · 잠시 귀환 · 65 AD 피소 음모 · 세네카의 죽음) / 도미티아누스의 박해(171쪽 ¶3~¶4: 78 AD 티투스 · 93 AD 아룰레누스 루스티쿠스 · 헬비디우스의 아들 · 에파프로디투스 · 철학자 추방) / 숫자(강의 21편 · 1,000세스테르티우스 · 3년 · 70~80대)
9~10	**어법**	so ~ as to V · make + O + 원형 · Nor + 도치 · not A but B · It is ~ who · no less than · 장소 부사구 도치 · ought 부정 의문문 · worth -ing · of + 추상명사 · as long as · most of whom · 양보의 As ~ as · 가정법 과거완료 · the 비교급, the 비교급 · must have p.p. · No matter + 명사 · no + 명사 + so ~ that … not · 부정어구 도치 · 관계대명사 that / what — 9번은 노동과 고난(166쪽 ¶4 · 167쪽 ¶1), 10번은 이성의 의사와 단련(168쪽 ¶6 ~ 169쪽 첫 줄)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humble↔arrogant · provocative↔uncontroversial · intemperate↔moderate · voluntarily↔reluctantly · capriciousness↔constancy · desolate↔lively · conceited↔modest · unheeded↔heeded · reviled↔revered · wantonness↔restraint · undaunted↔discouraged — 11번은 비텔리우스 말기의 사절(169쪽 ¶7~¶9)
12	빈칸 추론	One who by living is of use to many … of use to more(167쪽 ¶5) / not the loud cheering … It was silence / Suffer and endure toward virtue / a chance to move closer to virtue if one so chose / to be indifferent to who was in power / the toil passes, but the good remains / kept his teachings the same no matter how powerful or powerless / ability to endure exile
13	문장 삽입	시리아 왕에게 한 강의(171쪽 ¶1~¶2): 방종 → 절제 · 지나침 · 정의 → 직접 겪은 교훈 → 넋을 잃은 침묵 → 좋은 왕 = 좋은 사람 → 보답 제안 → 유일한 부탁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4	무관한 문장	로마의 소크라테스와 겸손한 출신(165쪽 ¶1~¶3)에 오늘날 기아로스 섬의 모습(167쪽 ¶7)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끝(171쪽 ¶7 ~ 172쪽 ¶2): 철학의 정의 → 늦게가 아니라 잘 → 잘 죽을 준비 · 자기 차례 → 마지막 날처럼 · 존엄과 평정
16	요약문 완성	켈레르 기소(170쪽 ¶1~¶5): 정의가 드문 시대의 힘겨운 승리 → 수고는 지나가고 선은 남는다 → 위험한 수 · 3년 유배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고유명사·숫자·True/False 8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연도가 계단처럼 이어지는 장이다(60 AD 플라우투스와 시리아 → 65 AD 기아로스 → 68 AD 갈바 · 귀환 → 70 AD 무렵 켈레르 기소 → 베스파시아누스의 3년 유배 → 78 AD 티투스의 소환 → 93 AD 도미티아누스). 유배를 세는 문제(두 번 → 세 번째 → 넷째였을지도)와 인물(플라우투스 · 트라세아 · 아폴로니오스 · 견유학파 데메트리오스 · 에픽테토스 · 아룰레누스 루스티쿠스 · 켈레르 · 바레아 소라누스 · 에파프로디투스)이 많다.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silence ↔ loud cheering, as much as men ↔ less than men, prosecuted ↔ represented Celer, originally exempted ↔ exiled at once, into his seventies or eighties ↔ died young). 동사와 인물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는다.

1-2. 구조도 — 「Musonius Rufus the Unbreakable」 (165~172쪽)

전기형(카토 · 트라세아와의 비교 → 로마의 소크라테스 → 박수 대신 침묵 → 여성 교육 · 결혼 → 노동과 덕을 향한 고생 → 플라우투스와 기아로스 → 왜 살았나 → 섬의 샘 · 전설 → 유배라는 시험 → 이성의 의사 · 단련 → 귀환과 에픽테토스 → 권력에 무관심 · 사절 → 켈레르 기소 → 세 번째 유배 → 시리아 왕 → 도미티아누스 → 끝). 핵심 축은 **헛된 목적을 위한 고생 vs 덕을 향한 고생**, 그리고 **빼앗을 수 있는 것(조국 · 편안함) vs 빼앗을 수 없는 것(견디는 능력)**.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65 ¶1	도입	카토는 결국 한 황제에게만 맞섰다 / 트라세아의 친구 무소니우스 — 트라세아의 시련이 즐거워 보일 만큼 험한 삶
165 ¶2~¶3	인물	티베리우스 시대 에트루리아 볼시니이의 기사 계급 · '로마의 소크라테스' · 그리스도인부터 마르쿠스까지의 찬사 / 세네카 · 키케로와 달리 겸손 — 원로원 계급 · 큰 재산 · 명문가 혼인 · 명성 · 권력과 거리가 멂
165 ¶4~¶6	박수 대신 침묵	칭찬과 박수 = 청중과 철학자 모두의 시간 낭비 · 피리 연주자의 공연 / 성공의 표시 = 침묵(청중이 생각한다는 뜻) · 존경 어린 침묵 속 군중(저자의 상상)
165 ¶7 ~ 166 ¶2	여성 교육	가장 도발적인 믿음 — 여성도 남성만큼 교육 · 남은 강의 21편 중 2편 / 관습적이지 않은 견해 · 독립적 사고 · 덕을 향한 성향은 여성에게도
166 ¶3	결혼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완전한 동반과 서로의 사랑 · 헌신을 겨루는 부부 · 브루투스와 포르키아 / 그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음 —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으리라는 추측
166 ¶4~¶5	노동과 고난	고된 노동과 인내 · 클레안테스와 같은 바탕(육체노동) · 생계에 관한 강의 / 고난은 삶의 일부 · 헛된 목적에도 사람들은 스스로 고생한다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66 ¶6 ~ 167 ¶1	덕을 향한 고생	어차피 고생할 거라면 가 볼 만한 곳으로 / 욕망 다스리기 · 적게 원하기 · 명성을 갈망하지 않기 · 시기하지 않기 · 참된 친구 / 그에게도 고난이 기다림
167 ¶2~¶3	첫 시련	스토아 반대파 · 표적이 된 플라우투스 / 60 AD 시리아 동행 · "용기를 내 죽음을 기다리라" · 아마 그의 죽음 곁에 / 잠시 귀환 → 65 AD 피소 음모 · 세네카의 죽음 → 기아로스
167 ¶4~¶6	왜 살았나	고향에서 약 700마일 · 자기 조언을 따라야 할까 / 더 무거운 불행을 고를 이유가 없다 / 살아서 많은 이에게 쓸모 있는 사람은 죽음을 고를 권리가 없다
167 ¶7~¶8	섬의 샘 · 전설	오늘날 무인도 · 땅속 샘(한 기록) · 유배 = 악이 아니라 시험 · 지중해의 방문객들 / 아폴로니오스의 허구 편지: 구출 사양 · 소크라테스와 달리 변론하겠다
168 ¶1~¶5	유배라는 시험	데메트리오스와 운하 일화(날짜가 맞지 않음) / 해 · 물 · 공기 · "집에서도 온 땅을 누리지 않았다" / 역경은 택하면 나를 낫게 한다 · 견유학파 디오게네스 · 통풍 / 그 자신도 나아졌다
168 ¶6 ~ 169 첫 줄	이성의 의사	이성으로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 · 꺾이지 않는 영혼의 성채 · 지름길과 각성제 사절 / 로마에서도 추위 · 더위 · 갈증 · 배고픔 · 딱딱한 침대 / 유배에도 좋은 시절에도 준비
169 ¶1~¶4	귀환 · 제자	68 AD 갈바 → 귀환 · 강의 재개 · 10년 뒤 에픽테토스 / 제자는 준비되면 스승을 만난다 · 돌려보내 결심을 시험 · 던진 돌 / 부자에 대한 혐오 · 사기꾼에게 1,000세스테르티우스
169 ¶5~¶9	권력에 무관심	두 번의 유배 뒤에도 숨지 않음 · 누가 권력을 쥐든 무관심 / 비텔리우스 말기의 사절 · 아룰레누스 루스티쿠스 부상 · 짓밟힐 뻔함 / 야유 · 비텔리우스의 최후 · 베스파시아누스
170 ¶1~¶5	켈레르 기소	70 AD 무렵 동료 스토아 켈레르 기소 · 변호인 데메트리오스 · 힘겨운 승리 / 수고는 지나가고 선은 남는다 / 위험한 수 · 철학자 일괄 추방 → 처음엔 면제 → 3년 유배
170 ¶6~¶9	세 번째 유배	이유는 알 수 없음 · 세 번째로 난민의 삶 / 폭군보다 나을 것 없는 우리 · 원치 않던 일이 최선이 됨 / 다시 시리아 — 나쁜 상황에서 최선을
170 ¶10 ~ 171 ¶2	시리아 왕	『왕들도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 · 힘이 있든 없든 같은 가르침 · 네 가지 덕 / 방종 · 절제 · 정의 · 좋은 왕 = 좋은 사람 / 보답 제안 → "이 가르침에 충실하라"
171 ¶3~¶5	도미티아누스	78 AD 티투스의 소환 · 폭정을 택한 도미티아누스 · 에픽테토스를 길러 냄 / 93 AD 스토아 박해 · 철학자 추방 / 넷째 유배였을지도 · 70~80대 · 견디는 능력은 빼앗기지 않음
171 ¶6 ~ 172 ¶2	끝	꺾이지 않는 능력 · 마지막 숨까지 헌신 / 철학 = 이성으로 찾고 행동으로 실천 / 늦게가 아니라 잘 죽는 사람이 복되다 · 마지막 날처럼 · 존엄과 평정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세 사람의 시련	카토 — 결국 한 황제에게만 맞섬 / 트라세아 — 네로 아래의 시련	무소니우스 — 트라세아의 시련이 즐거워 보일 만큼 험한 삶
출신과 태도	세네카 · 키케로 — 로마 사회 꼭대기 자리를 즐김	무소니우스 — 겸손 · 명성과 권력을 구하지 않음
강의의 성공	박수 · 환호 · 말의 매력(피리 연주자의 공연)	침묵 — 청중이 어려운 생각과 씨름한다는 표시
여성	당시 다수 — 여성은 재산에 불과	무소니우스 — 덕을 향한 성향은 여성에게도 · 남성만큼 교육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고생의 방향	헛된 목적 — 남의 아내 · 돈 · 명성 · 시기 · 거짓 친구	덕 — 욕망 다스리기 · 적게 원하기 · 시기하지 않기 · 참된 친구
유배를 보는 눈	악 · 고난 · 빼앗긴 편안함	시험 · 덕에 다가갈 기회 · 아직 가진 것(해 · 물 · 공기)
죽음의 선택	더 무거운 불행을 스스로 고르기	살아서 쓸모 있는 한 살기(죽어서 더 쓸모 있을 때만 죽음)
치료	지름길 · 정신만 들게 하고 병은 못 고치는 각성제	이성으로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
권력 앞에서	몸을 낮추고 숨기(세네카 · 키케로라면)	누가 권력을 쥐든 무관심 · 옳다고 믿는 것을 숨기지 않음
정의의 대상	동료라서 봐주기	편애 없음 — 동료 스토아 켈레르도 기소(카토처럼)
가르침의 대상	상대의 권력에 따라 달라지는 가르침	해방 노예든 왕족이든 같은 가르침 · 네 가지 덕
삶의 목표	오래 사는 것(longevity)	잘 사는 것 · 잘 죽는 것(not late but well)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Gaius Musonius Rufus	B. **20–30 AD** · Origin **Volsinii, Etruria** · D. **c. 101 AD**(표지 표기 — 171쪽 ¶5는 93년까지 살았는지 모른다고 함, 원서 안의 차이) · 발음 Mu-SOWN-ee-us ROOF-us · the Unbreakable(꺾이지 않는 사람) · 트라세아의 친구
출신 · 명성 · 겸손	**티베리우스** 치세 · **기사 계급** · 동시대인이 부른 이름 = **"로마의 소크라테스"** · 찬사: 순교자 유스티누스 ·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그리스도인)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 세네카 · 키케로와 달리 원로원 계급 · 큰 재산 · 명문가 혼인과 무관 · 명성과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듯(it seems)
박수 vs 침묵	칭찬과 박수 = 청중과 철학자 모두의 **시간 낭비** · 그런 청중이 듣는 것은 철학자가 아니라 **피리 연주자**의 공연 / 성공의 표시 = **침묵**(청중이 실제로 생각한다는 뜻) · 침묵 속 군중은 저자의 상상(we can imagine)
여성 교육	1세기 로마에서 **가장 도발적인** 믿음 · 남은 강의 **21편** 중 2편 — 『여성도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 · 『딸도 아들과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 당시 대다수는 여성을 재산으로 봄 · 스토아 훈련의 핵심 = 독립적 사고
결혼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완전한 동반과 서로의 사랑" · 헌신을 서로 앞서려는 부부 · **브루투스와 포르키아**의 "아름다운 결합"(14장) / 그의 결혼 생활은 **알 수 없음** —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으리라는 저자의 추측
Cleanthes · 고난	같은 바탕의 사람 · **육체노동**으로 철학 공부(2장) · 강의 『철학자에게 맞는 생계 수단은 무엇인가』 / 헛된 목적에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고생 → 덕을 향해 고생하고 견뎌라
Plautus · 60 AD	**스토아 반대파**와의 인연이 첫 시련 · 네로의 편집증이 플라우투스를 표적으로 / **60 AD** 플라우투스와 함께 **시리아**로 · "용기를 내 죽음을 기다리라" · 플라우투스가 죽을 때 **아마**(likely) 그 자리에(20장)
65 AD · Gyara	잠시 로마 귀환 → **피소 음모**의 여파로 세네카가 죽은 **65 AD**, 네로가 황량한 섬 **기아로스**로 추방 · 고향에서 약 **700마일** · 오늘날 사람이 살지 않는 메마르고 험한 섬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왜 자결하지 않았나	트라세아에게 일깨운 말: 눈앞의 불행으로 버틸 수 있으면 더 무거운 불행을 고를 이유가 없다 / "살아서 많은 이에게 **쓸모 있는** 사람은, 죽어서 더 많은 이에게 쓸모 있지 않는 한 죽음을 고를 권리가 없다"
섬의 샘	**한 기록**에 따르면 땅속 **샘** 발견 · 대부분 정치 유배자였던 섬 주민들의 영원한 감사 · 유배 = 악이 아니라 **시험** · 지중해 각지에서 찾아온 철학자 · 고관들의 조언자
Apollonius of Tyana	**허구의** 편지(fictional letters) · 구출하겠다는 꿈 → 필요 없다, 참된 사람은 스스로 결백을 증명 / 소크라테스처럼 죽을까 걱정 → "소크라테스는 변론할 준비가 없었지만 나는 하겠다"(supposedly — 그랬다고 함)
Demetrius the Cynic	트라세아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견유학파(21장) · 쇠사슬에 묶여 네로의 운하(지협)를 파는 무소니우스를 만났다고 함 · 공사 시기가 기아로스 유배와 겹쳐 **믿기 어려움** / 70 AD 무렵 켈레르의 **변호인**
Diogenes(견유학파)	**스토아 디오게네스가 아님**(168쪽 ¶4가 직접 구분) · 제논 이전의 유명한 견유학파 · 유배로 평범한 사람에서 철학자로 · **시노페** 대신 그리스에서 덕을 실천 / 유배로 만성병 · **통풍**이 나은 사람들
단련	이성으로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 · 바위처럼 단단하고 꺾이지 않는 영혼의 **성채** · 지름길과 각성제 사절 / 로마에서도 **추위 · 더위 · 갈증 · 배고픔 · 딱딱한 침대**를 찾아 견딤
68 AD · Epictetus	**갈바**가 네로를 이은 **68 AD** 귀환 · 강의 재개 · 이후 10년 동안 명성이 커짐 / **에픽테토스** = 네로의 비서 중 한 사람의 노예였던 사람 · 제자를 돌려보내 결심을 시험(에픽테토스에게 쓴 장면은 상상) · 던진 돌의 비유
1,000 sesterces	부자와 돈의 타락에 대한 혐오 · 한 증인의 전언: 철학자 행세를 하는 사기꾼에게 **1,000세스테르티우스** · "돈이야말로 그가 받아 마땅한 것"
Vitellius · Vespasian	비텔리우스 말기 · 충돌을 막으려는 **사절** · 동료 **아룰레누스 루스티쿠스** 중상(트라세아가 마지막 말로 조언한 사람 · 25장 루스티쿠스의 할아버지) · 짓밟혀 죽을 뻔함(**타키투스**) · 야유 · 비텔리우스는 갈바가 죽은 곳 근처에서 군중에게 찢겨 죽음
70 AD 무렵 · Celer	**푸블리우스 에그나티우스 켈레르** = 다른 스토아를 네로에게 밀고 · **바레아 소라누스** 처형에 가담 · 무소니우스 = **기소** · 데메트리오스 = 변호 · 힘겨운 정의의 승리 / "수고는 지나가고 선은 남는다"
Vespasian의 추방	1년쯤 뒤 모든 철학자 일괄 추방(아마 스토아를 없애려고 — Perhaps) · 무소니우스는 **처음엔 면제** → 곧 개인적으로 **3년** 유배 · 이유는 알 수 없음 · **세 번째** 유배 · 다시 **시리아**
Syrian king	강의 『왕들도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에서 지나가듯 언급 · 해방 노예에게나 헤롯 대왕의 손자(문맥상 이 시리아 왕)에게나 같은 가르침 · 네 가지 덕(정의 · 절제 · 지혜 · 용기) · 망침의 원인 = **방종** · "이 가르침에 충실하라"
78 · 93 AD	**78 AD**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티투스**가 소환 · 1년 안에 황제, 3년 안에 사망 · **도미티아누스** = 폭력 · 무자비 · 편집증 / **93 AD** 아룰레누스 루스티쿠스 사형 선고 → 이어 헬비디우스 프리스쿠스의 아들 살해 · **에파프로디투스**(에픽테토스의 옛 주인 · 25년 전 네로의 자결을 도움) 살해 · 철학자 추방(에픽테토스 포함)
끝	살아 있었다면 **넷째** 유배 · 그때까지 살았는지 알 수 없음 · **70대나 80대**까지 · 빼앗기지 않은 것 = "유배를 견디는 능력" / "늦게가 아니라 **잘** 죽는 사람이 복되다" · "오늘을 마지막 날로 여기지 않으면 오늘을 잘 살 수 없다"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Lives of the Stoics · 「Musonius Rufus the Unbreakable」 (원서 PDF 165~172쪽) · 8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23-1 로마의 소크라테스, 박수 대신 침묵 165쪽 ¶1~¶6

원문 위치 원서 165쪽 ¶1~¶6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5쪽 ¶1 첫 문장	Cato may have been Rome's Iron Man, but	may have p.p.(양보의 추측) + but
▲	165쪽 ¶1 둘째 문장	a life so challenging as to make Thrasea's ordeal under Nero seem fun	so ~ as to V + make O 원형
◆	165쪽 ¶1 둘째 문장	Thrasea's ordeal under Nero seem fun	밑줄 의미: 트라세아의 시련도 가벼워 보일 만큼 험한 삶
▲	165쪽 ¶2 첫 문장	Born a member of the equestrian class, …, Musonius Rufus quickly made	과거분사 분사구문(Born + 보어)
★	165쪽 ¶2 셋째 문장	the "Roman Socrates"	별명 — 서답형 후보
▲	165쪽 ¶2 넷째 문장	It was fame that transcended his times / we find Musonius mentioned admiringly	관계대명사 that + find O p.p.
●	165쪽 ¶3 첫 문장	Musonius was a far more humble figure	반전 후보 → arrogant
▲	165쪽 ¶3 다섯째 문장	Nor, it seems, did he think	Nor + 도치 + 삽입절(추측)
★	165쪽 ¶4 첫 문장	praise and applause were wastes of time	주장·빈칸 후보
◆	165쪽 ¶4 둘째 문장	not hearing a philosopher speaking but a flute player performing	밑줄 의미 1순위
▲	165쪽 ¶4 둘째 문장	if the audience pour forth …, then you may know that	if절 반복 + 집합명사 복수 동사
★	165쪽 ¶5 첫·둘째 문장	not the loud cheering of supporters. It was silence.	빈칸 1순위 · 반전 후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5쪽 ¶5 셋째 문장	Because it meant the audience was actually thinking	Because절 단독 문장(앞 문장의 이유)
▲	165쪽 ¶6	we can imagine this Roman Socrates drawing large crowds	imagine + O + -ing / 추측 표현

내용

카토는 로마의 강철 인간이었을지 몰라도 끝내 맞선 황제는 한 명뿐이었다. 트라세아는 두려움을 몰랐지만, 그의 친구 가이우스 무소니우스 루푸스도 두려움이 없었고, 공교롭게도 네로 아래에서 트라세아가 겪은 시련이 즐거워 보일 만큼 험한 삶을 견뎠다. 그는 티베리우스 치세에 에트루리아의 볼시니이에서 기사 계급으로 태어나 철학자이자 스승으로 빠르게 이름을 얻었다. 뛰어난 스토아가 오래 이어진 뒤였는데도 그는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여겨졌고, 동시대인들은 그를 지혜와 용기, 절제, 그리고 옳은 것에 대한 뼛속 깊은 헌신을 갖춘 '로마의 소크라테스'라 불렀다. 그 명성은 시대를 넘어, 순교자 유스티누스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같은 그리스도인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모두가 그를 높이 언급한다. 그러나 로마 사회의 꼭대기 자리를 즐긴 세네카나 키케로와 달리 무소니우스는 훨씬 겸손한 인물이었다. 원로원 계급이나 큰 재산을 타고나지 않았고, 연줄 좋은 집안과 혼인하지도 않았으며, 명성이나 권력을 좇지도 않았다. 그런 것들을 특별히 중요하다고 여기지도 않은 듯하다. 그는 칭찬과 박수가 청중에게도 철학자에게도 시간 낭비라고 믿었다. 철학자가 권하고 설득하고 꾸짖고 논할 때 청중이 진부한 칭찬을 쏟아 내고 소리치고 몸짓하며 말의 매력과 가락과 수사적 반복에 휩쓸린다면, 말하는 이도 듣는 이도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고, 그들이 듣는 것은 철학자의 말이 아니라 피리 연주자의 공연이라고 했다. 그에게 성공한 철학자의 표시는 지지자들의 큰 환호가 아니라 침묵이었다. 침묵은 청중이 실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 말하는 이가 전하려는 어려운 생각과 씨름하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로마의 소크라테스가 화려한 연출이 아니라 가르침의 명성으로 큰 군중을 모으고, 그가 그들이 가장 깊이 품은 전제에 도전할 때조차 군중이 존경 어린 침묵 속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어법

- **endured a life so challenging as to make Thrasea's ordeal under Nero seem fun** : so + 형용사 + as to V = ~할 만큼 …한(정도·결과). make + O + 원형(seem) — 사역동사이므로 to seem은 오답. as it happens = 공교롭게도(문장 중간의 삽입구).
- **Born a member of the equestrian class, in Volsinii, Etruria, during the reign of Tiberius, Musonius Rufus quickly made his reputation as a philosopher and as a teacher** : 과거분사 분사구문(= He was born a member of ~). born 뒤의 a member는 주격 보어. 의미상 주어는 주절의 Musonius Rufus. make one's reputation as ~ = ~로 이름을 얻다.
- **It was fame that transcended his times, and we find Musonius mentioned admiringly by everyone from Christians like Justin Martyr and Clement of Alexandria to Marcus Aurelius** : It = 앞 문장에서 말한 그의 평판,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fame) — 시대를 넘어선 명성이었다. find + O + 과거분사(언급'된' 것을 보게 된다). from A to B = A부터 B까지.
- **unlike Seneca and Cicero, who relished their places at the top of the heap of Roman society, Musonius was a far more humble figure** : unlike = 전치사(~와 달리) + 명사. 콤마 뒤 who = 계속적 용법. far + 비교급 = 훨씬(much · even도 가능, very는 불가). relish + 명사 = 즐기다.
- **Nor, it seems, did he think these things were particularly important** : 부정어 Nor가 문두에 와서 조동사가 앞으로 나간 도치(did he think). it seems = 삽입절(저자의 추측이지 단정이 아니다). think 뒤 that 생략.
- **if the audience pour forth trite and commonplace words of praise ..., then you may know that both the speaker and his audience are wasting their time** : if절을 여러 번 겹친 뒤 then으로 주절을 연다. audience를 구성원 여럿으로 보아 복수 동사 pour를 썼다(이 번역문의 선택). both A and B → 복수 are.

- **they are not hearing a philosopher speaking but a flute player performing** : not A but B. hear + O + -ing = ~가 …하고 있는 것을 듣다. but 뒤에서는 반복되는 hearing이 생략되었다.
- **To Musonius, the sign of a successful philosopher was not the loud cheering of supporters. It was silence. Because it meant the audience was actually thinking** : 주어 the sign(단수) → was. It = the sign. 이유의 Because절만 떼어 낸 문장은 앞 문장에 이유를 덧붙이는 구어적 문체(영작에서는 앞 문장에 이어 쓰는 편이 안전).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ordeal	시련	trial, hardship	—
equestrian	기사 계급의	knightly	—
contemporary	동시대인	peer	—
marrow-deep	뼛속 깊은	profound	superficial
transcend	넘어서다, 초월하다	surpass	—
admiringly	감탄하며	approvingly	disparagingly
humble	겸손한, 미천한	modest	arrogant
exhort	권고하다	urge	discourage
rebuke	꾸짖다	reprimand	praise
trite	진부한	hackneyed	original
gesticulate	몸짓하다	gesture	—
showmanship	쇼맨십, 연출 솜씨	flair	—
assumption	전제, 가정	presumption	—

내용 일치 카토 = 결국 황제 한 명에게만 맞섬 · 무소니우스 = 트라세아의 친구 · 기사 계급 · 에트루리아의 볼시니이 · 티베리우스 치세 · '로마의 소크라테스' · 찬사: 유스티누스 · 클레멘스(그리스도인)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 원로원 계급 X · 큰 재산 X · 명문가 혼인 X · 명성 · 권력 추구 X · 성공의 표시 = 박수가 아니라 침묵 · 침묵 속 군중 = 저자의 상상. **밑줄 의미** a flute player performing = 철학이 아니라 귀를 즐겁게 하는 공연 —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의 가락에만 휩쓸린 청중 / seem fun = 트라세아의 시련조차 가벼워 보일 만큼 무소니우스의 삶이 험했다는 과장.

> **한 줄 요약** '로마의 소크라테스' 무소니우스는 명성과 권력을 좇지 않은 겸손한 철학자였고, 박수가 아니라 생각하는 청중의 침묵을 성공의 표시로 보았다.

23-2 여성도 철학을, 헌신을 겨루는 결혼 165쪽 ¶7 ~ 166쪽 ¶3

원문 위치 원서 165쪽 ¶7 ~ 166쪽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5쪽 ¶7 첫·둘째 문장	His most provocative belief …? That women deserved an education as much as men.	제목·빈칸 1순위
▲	165쪽 ¶7 둘째 문장	That women deserved an education as much as men	명사절 단독(앞 의문문의 답) + as much as
★	165쪽 ¶7 셋째 문장	Two of Musonius's twenty-one surviving lectures	숫자 — 21편 중 2편
▲	165쪽 ¶7 셋째 문장	come down strongly in favor of treating women well and of their capabilities	in favor of + 동명사 / 명사구 병렬
●	166쪽 ¶1	This was not a conventional view	반전 후보 → conventional ↔ unconventional
◆	166쪽 ¶1	the right thing rarely is	생략: is (a conventional view)
◆	166쪽 ¶2 첫 문장	that Musonius held it	지칭: it = 여성 교육이라는 견해
▲	166쪽 ¶2 첫 문장	It should not surprise us that … or that …	가주어 it + that절 두 개
★	166쪽 ¶2 둘째 문장	A core precept of Stoic training is independent thinking	요지·빈칸 후보
▲	166쪽 ¶2 셋째 문장	It is not men alone who possess … but women also	강조구문 + not A alone but B also
▲	166쪽 ¶2 넷째 문장	Women are pleased no less than men by noble and just deeds	no less than(못지않게) + 수동 형태
▲	166쪽 ¶3 둘째 문장	one where a couple strove to outdo each other in devotion	관계부사 where(추상적 선행사)
★	166쪽 ¶3 셋째 문장	the kind of "beautiful union" that Brutus and Porcia had	인물 — 14장 연결
◆	166쪽 ¶3 다섯째 문장	We don't know—but it would be incredible to think	추측 표지: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음

내용

1세기 로마에서 그가 품은 가장 도발적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여성도 남성만큼 교육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남아 있는 무소니우스의 강의 스물한 편 가운데 두 편, 『여성도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와 『딸도 아들과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는 여성을 잘 대우하는 일과 철학자로서 여성이 지닌 능력을 강하게 지지한다. 관습적인 견해는 아니었다. 하기야 옳은 것은 좀처럼 관습적이지 않다. 대부분이 여성을 재산에 불과하다고 믿던 시대에 무소니우스가 이런 견해를 품고 이를 주장할 용기를 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스토아 훈련의 핵심 계율은 독립적 사고이고, 여기서 그는 자기

시대의 맥락을 벗어나 무엇이 정의로운지를 보는 능력을 보여 주었다. 그는 덕을 향한 열의와 타고난 성향을 지닌 것은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이며,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고귀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기뻐하고 그 반대의 행동을 거부한다고 썼다. 그렇다면 어떻게 잘 살지를 찾고 살피는 일, 곧 철학을 하는 것이 남성에게는 마땅한데 왜 여성에게는 그렇지 않은가라고 그는 물었다. 결혼에 대한 그의 생각도 현대적이었다. 그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어떤 처지에서나 남편과 아내의 "완전한 동반과 서로의 사랑"을 요구했다. 그가 보기에 좋은 결혼은 부부가 헌신에서 서로를 앞서려고 애쓰는 결혼이었다. 그는 브루투스와 포르키아가 누린 것 같은 "아름다운 결합", 곧 두 영혼이 삶의 역경 속에서도 서로 곁을 지키며 더 큰 덕으로 서로를 북돋우는 결합을 이야기했다. 무소니우스 자신의 결혼은 어땠을까? 우리는 모른다. 다만 이런 결혼의 이로움을 그토록 감동적으로 쓴 사람이 경험에서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곧 닥칠 역경을 용기와 덕을 갖춘 삶의 동반자 없이 견뎌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저자는 본다.

어법

- **His most provocative belief in first-century Rome? That women deserved an education as much as men.** : 주어 명사구에 물음표를 붙인 질문과 that 명사절 단독 문장으로 묻고 답하는 문체. as much as men = 남성만큼(men 뒤 did 생략).
- **Two of Musonius's twenty-one surviving lectures ... come down strongly in favor of treating women well and of their capabilities as philosophers** : 주어 Two(복수) → come. come down in favor of = ~을 지지하는 쪽으로 결론 내리다. of + 동명사구(treating ~)와 of + 명사구(their capabilities)가 병렬.
- **This was not a conventional view, but then again, the right thing rarely is.** : rarely is 뒤에 반복되는 a conventional view가 생략되었다. then again = 하기야, 다시 생각해 보면.
- **It should not surprise us that Musonius held it or that he had the courage to argue it at a time when most believed that women were no more than property** : 가주어 It, 진주어 that절 둘을 or로 병렬. at a time when = 관계부사 when(~하던 시대에). no more than = ~에 불과한.
- **"It is not men alone who possess eagerness and a natural inclination towards virtue," he wrote, "but women also."** : It is ~ who 강조구문(강조되는 말 = not men alone ... but women also). not A alone but B also = not only A but also B.
- **Women are pleased no less than men by noble and just deeds, and reject the opposite of such actions** : be pleased by = ~에 기뻐하다. no less than men = 남성 못지않게(남성과 같은 정도로). are pleased와 reject가 주어 Women을 공유한다.
- **A good marriage, he believed, was one where a couple strove to outdo each other in devotion** : 삽입절 he believed. one = a marriage. where = 관계부사(관계 · 상황 같은 추상적 선행사에도 쓴다). strive-strove-striven + to V.
- **it would be incredible to think that a man who wrote so movingly ... would not be speaking from experience, and more impossible still that Musonius could have endured the adversity he was soon to face** : 가주어 it + to think의 목적어 that절 둘. more impossible still = 더더욱 불가능한(비교급 뒤의 still이 강조). could have p.p. = ~할 수 있었을 것. be to V(was soon to face) = 곧 ~하게 되어 있었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rovocative	도발적인	controversial	uncontroversial
surviving	남아 있는	extant	lost
in favor of	~을 지지하여	supporting	against
capability	능력	capacity	incapacity
conventional	관습적인	traditional	unconventional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recept	계율, 교훈	principle	—
illustrate	보여 주다	demonstrate	—
inclination	성향	tendency	aversion
companionship	동반, 친교	fellowship	isolation
mutual	서로의	reciprocal	one-sided
outdo	능가하다	surpass	—
devotion	헌신	dedication	indifference
adversity	역경	hardship	prosperity

내용 일치 가장 도발적인 믿음 = 여성도 남성만큼 교육 · 남은 강의 21편 중 2편 · 당시 다수는 여성을 재산으로 봄 · 스토아 훈련의 핵심 = 독립적 사고 · 덕을 향한 성향은 여성에게도 · 결혼관 = 현대적,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 헌신을 서로 앞서려는 부부 · 브루투스와 포르키아의 '아름다운 결합' · 그의 결혼 생활은 알 수 없음(저자의 추측뿐). **지칭** 166쪽 ¶1 This = 여성도 교육받아야 한다는 견해 / ¶2 held it · argue it = 같은 견해, Since that is so의 that =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덕을 기뻐한다는 앞 문장 / ¶3 one(where ...) = a marriage, each other = 남편과 아내.

> **한 줄 요약** 무소니우스는 여성도 남성만큼 철학을 배워야 한다는 시대를 앞선 주장을 폈고, 결혼도 서로 헌신을 겨루며 덕을 북돋우는 동반자 관계로 보았다.

23-3 어차피 고생할 거라면, 덕을 향해 166쪽 ¶4 ~ 167쪽 ¶1

원문 위치 원서 166쪽 ¶4 ~ 167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6쪽 ¶4 첫 문장	At the core of Musonius's teachings was a belief	장소 부사구 문두 → 동사 · 주어 도치
◆	166쪽 ¶4 둘째 문장	cut from the same cloth as Cleanthes	밑줄 의미: 클레안테스와 같은 바탕(13장의 different cloth와 대비)
▲	166쪽 ¶4 둘째 문장	who centuries before had supported his philosophical studies with manual labor	계속적 관계사 + 과거완료
★	166쪽 ¶4 셋째 문장	What Means of Livelihood Is Appropriate for the Philosopher	강의 제목 — 내용 일치 후보
▲	166쪽 ¶4 셋째 문장	believing very little was beneath our dignity, if done well	분사구문 + if (it is) done
★	166쪽 ¶5 첫 문장	Hardship, he believed, was simply a part of life.	주장 후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6쪽 ¶5 둘째 문장	it is useful to recall what hardships people will endure for unworthy ends	가주어 + 간접의문문(what + 명사)
●	166쪽 ¶5 셋째 문장	submit to all kinds of toil and hardship voluntarily	반전 후보 → reluctantly
▲	166쪽 ¶6	ought we not suffer in a way that gets us somewhere worth going?	ought 부정 의문문 + worth -ing
★	166쪽 ¶7 첫 문장	Suffer and endure toward virtue	주장·빈칸 1순위
▲	166쪽 ¶7 둘째 문장	how much better it is, instead of exerting oneself ..., to exert oneself to discipline	가주어 it ... to V + instead of -ing
▲	166쪽 ¶7 둘째 문장	to give oneself trouble how not to thirst for notoriety	how + not to V
◆	167쪽 첫 줄	instead of slaving, as sycophants do, to win false friends	as = ~처럼 · 거짓 친구 vs 참된 친구
▲	167쪽 ¶1	he ... would find that life had challenges and hardships in store	과거에서 본 미래 would + have A in store

내용

무소니우스 가르침의 핵심에는 고된 노동과 인내가 중요하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는 수세기 전 육체노동으로 철학 공부를 이어 간 클레안테스와 같은 바탕을 지닌 사람이었다. 『철학자에게 맞는 생계 수단은 무엇인가』라는 강의에서 그는 그런 고된 노동을 높이 평가하며, 잘하고 바른 직업 윤리로 한다면 우리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았다. 그에게 고난은 그저 삶의 일부였다. 그는 덕과 선을 위해 겪게 될 고난을 더 쉽고 기쁘게 견디려면, 사람들이 가치 없는 목적을 위해 얼마나 큰 고난을 견디는지 떠올려 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다. 방탕한 연인들이 악한 욕망을 위해 무엇을 겪는지,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명성을 좇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견디는지 생각해 보고, 이들 모두가 온갖 수고와 고난을 스스로 택해 짊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그러니 어차피 고생할 거라면, 가 볼 만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방식으로 고생해야 하지 않겠는가? 덕을 향해 고생하고 견뎌라. 이것이 무소니우스 가르침의 핵심이다. 그는 이렇게 물었다. 남의 아내를 얻으려 애쓰는 대신 자기 욕망을 다스리려 애쓰고, 돈을 위해 고난을 견디는 대신 적게 원하도록 자신을 훈련하고, 이름을 날리려 애태우는 대신 이름을 갈망하지 않는 법을 고민하고, 시기하는 사람을 해칠 방법을 찾는 대신 누구도 시기하지 않는 법을 묻고, 아첨꾼처럼 거짓 친구를 얻으려 종처럼 일하는 대신 참된 친구를 얻으려 고생하는 편이 얼마나 나은지 누구나 인정하지 않겠느냐고. 그가 이 주제를 그토록 많이 쓰고 말한 것은 어울리는 일이다. 많은 스토아처럼 그 역시 삶이 시련과 고난을 준비해 두고 있음을 알게 될 터였기 때문이다.

어법

- **At the core of Musonius's teachings was a belief in the importance of hard work and endurance** : 장소의 부사구가 문두로 나가 동사 was와 주어 a belief가 자리를 바꾼 도치. 주어가 단수(a belief) → was.
- **He was a man cut from the same cloth as Cleanthes, who centuries before had supported his philosophical studies with manual labor** : cut = a man을 뒤에서 꾸미는 과거분사. the same A as B = B와 같은 A. who = 계속적 용법(선행사 Cleanthes). had supported = 무소니우스보다 앞선 시대의 일.

- **believing very little was beneath our dignity, if done well and with the right work ethic** : 분사구문(= as he believed ~). very little = 거의 없는 것(부정의 뜻). if done = if (it is) done — 주어와 be동사 생략. beneath one's dignity =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 **"it is useful to recall what hardships people will endure for unworthy ends"** : 가주어 it – 진주어 to recall. what hardships ~ = what + 명사가 이끄는 간접의문문(어떤 고난을 견디는지) — 평서문 어순.
- **bear in mind that all of these people submit to all kinds of toil and hardship voluntarily** : 명령문(consider ~ and bear in mind ~). submit to = ~을 감수하다(to는 전치사 → 뒤에 명사). all of + 복수명사 → 복수 동사 submit.
- **So if we're going to suffer, ought we not suffer in a way that gets us somewhere worth going?** : ought의 부정 의문문(ought we not + 원형). ought 뒤에는 보통 to가 오지만 부정 · 의문문에서는 원문처럼 to를 빼기도 한다. somewhere worth going = 가 볼 가치가 있는 곳(worth + -ing).
- **would not anyone admit how much better it is, instead of exerting oneself to win someone else's wife, to exert oneself to discipline one's desires** : 부정 의문문 형태의 수사의문문(=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how much better it is ~ to V = 간접 감탄절(가주어 it, 진주어 to exert). instead of + 동명사(exerting)와 to 부정사(to exert)의 대구.
- **he—like many of the Stoics—would find that life had challenges and hardships in store** : would = 과거에서 본 미래(그 뒤에 알게 될 일). have A in store = A를 준비해 두다(앞으로 닥칠 일).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endurance	인내	perseverance	weakness
manual labor	육체노동	physical work	—
livelihood	생계	living, income	—
dignity	품위, 존엄	self-respect	indignity
unworthy	가치 없는	base, worthless	worthy
intemperate	방탕한, 무절제한	unrestrained	moderate
exertion	노력, 분투	effort	idleness
toil	수고	labor, drudgery	rest
voluntarily	자발적으로	willingly	reluctantly
discipline (v.)	다스리다, 단련하다	train, control	indulge
notoriety	악명, 유명세	fame, infamy	obscurity
sycophant	아첨꾼	flatterer	—

내용 일치 가르침의 핵심 = 고된 노동과 인내 · 클레안테스와 같은 바탕(육체노동으로 철학 공부) · 강의 『철학자에게 맞는 생계 수단은 무엇인가』 · 잘하고 바른 직업 윤리라면 품위에 어긋나는 일은 거의 없음 · 고난은 삶의 일부 · 헛된 목적(방탕한 욕망 · 돈 · 명성)에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고생 · 핵심 = 덕을 향해 고생하고 견뎌라. **밑줄 의미** cut from the same cloth as Cleanthes = 노동과 인내를 철학의 일부로 여긴 클레안테스와 근본이 같은 사람 / somewhere worth going = 고생 끝에 이를 가치가 있는 곳, 곧 덕 / slaving ... to win false friends = 아첨으로 거짓 친구를 얻으려는 헛된 수고.

> **한 줄 요약** 고된 노동과 인내를 가르친 무소니우스는 사람들이 헛된 목적에도 기꺼이 고생한다는 점을 들어, 어차피 고생할 거라면 덕을 향해 고생하라고 했다.

23-4 첫 시련, 그리고 왜 살아남았나 167쪽 ¶2~¶6

원문 위치 원서 167쪽 ¶2~¶6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7쪽 ¶2 첫 문장	for whom Nero's paranoid delusions made him a marked man	전치사 + 관계대명사 · 지칭: him = Plautus
◆	167쪽 ¶2 첫 문장	a marked man	밑줄 의미: 표적이 된 사람
★	167쪽 ¶2 둘째 문장	accompany Plautus into exile to Syria in 60 AD	숫자·지명 — 20장 연결
▲	167쪽 ¶2 둘째 문장	It was Musonius who would accompany	강조구문 + would(과거에서 본 미래)
◆	167쪽 ¶2 셋째 문장	the capriciousness of fate, and by no means his last	밑줄 의미 · 생략(his last brush)
★	167쪽 ¶3 첫 문장	"to have courage and await death" / was likely there	인용 · 추측 표지(likely)
▲	167쪽 ¶3 둘째 문장	in 65 AD when the fallout from the Pisonian conspiracy claimed Seneca	관계부사 when + claim(목숨을 앗다)
★	167쪽 ¶3 둘째 문장	the desolate island of Gyara	지명 — 서답형 후보
▲	167쪽 ¶4	It was there that Musonius sat, …, wondering if	강조구문(장소) + 분사구문
★	167쪽 ¶4	some seven hundred miles from home	숫자 — some = 약
▲	167쪽 ¶5 셋째 문장	there is no reason to choose a heavier misfortune if we can make do with the one in front of us	현재시제(일반 진리) + one = misfortune
▲	167쪽 ¶5 넷째 문장	the difficulties fortune has chosen to give us	목적격 관계사 생략
★	167쪽 ¶5 여섯째 문장	One who by living is of use to many … unless by dying he may be of use to more	빈칸 1순위 · of use = useful
▲	167쪽 ¶6	as long as it was in his control to keep doing so well	as long as + 가주어 it + to V

내용

무소니우스의 첫 시련은 스토아 반대파와의 인연에서 왔다. 그 가운데 가이우스 루벨리우스 플라우투스가 있었는데, 네로의 편집증적 망상은 그를 표적으로 만들었다. 서기 60년 플라우투스를 따라 시리아로 망명길에 오른 사람이 무소니우스였다. 그가 운명의 변덕을 처음 맛본 일이었고, 결코 마지막도 아니었다. 무소니우스는 소중한 친구에게

"용기를 내 죽음을 기다리라"고 조언했고, 플라우투스가 네로의 성난 칼에 쓰러질 때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잠시 로마로 돌아오도록 허락받았지만, 피소 음모의 여파가 세네카의 목숨을 앗아 간 서기 65년, 네로에 의해 황량한 섬 기아로스로 추방되었다. 고향에서 약 700마일 떨어진 그곳에 앉아 그는 자기 조언을 스스로 따라 용기 있게 죽음을 기다려야 할지 생각했다. 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을까? 트라세아에게 일러 주었던 그대로였을까? 그는 트라세아에게, 눈앞의 불행으로 버틸 수 있다면 더 무거운 불행을 고를 이유가 없다고 일깨운 적이 있었다. 우리는 운명이 주기로 한 어려움에 만족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할 수 있다. 게다가 무소니우스는 자신에게 아직 살아 낼 삶이 남아 있다고 믿었다. 그는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쓸모 있는 사람은, 죽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쓸모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죽기를 택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우리도 그래야 하듯, 잘 그리고 더 큰 선을 위해 그렇게 계속하는 것이 자기 손에 달려 있는 한 살며 공부했다.

어법

- **Musonius's first brush with trouble came from his association with the Stoic Opposition, including Gaius Rubellius Plautus, for whom Nero's paranoid delusions made him a marked man** : including = ~을 포함하여(전치사). for whom = 전치사 + 관계대명사(선행사 Plautus). 관계절 안의 him도 플라우투스를 가리킨다(같은 사람을 두 번 받는 느슨한 구문). make + O + 명사 보어(a marked man).
- **It was Musonius who would accompany Plautus into exile to Syria in 60 AD** : It was ~ who 강조구문(주어 Musonius 강조). would = 과거에서 본 미래. accompany는 타동사 → accompany with는 오답.
- **It was Musonius's first brush with the capriciousness of fate, and by no means his last** : by no means = 결코 ~이 아닌. his last 뒤에 brush가 생략되었다(앞 명사의 반복을 피함).
- **Musonius would advise his dear friend "to have courage and await death," and was likely there when Plautus fell to Nero's angry sword** : advise + O + to V. would advise와 was가 주어 Musonius를 공유. likely = 아마(추측 —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fall to = ~에 쓰러지다.
- **It was there that Musonius sat, some seven hundred miles from home, wondering if he would need to follow his own advice** : It was ~ that 강조구문(장소 부사 there 강조). some + 숫자 = 약. wondering = 동시 동작의 분사구문. if = whether(~인지).
- **He had reminded Thrasea that there is no reason to choose a heavier misfortune if we can make do with the one in front of us** : remind + O + that절. 과거완료 뒤의 that절이 현재시제인 것은 늘 참인 일반 진리이기 때문. one = misfortune. make do with = ~으로 그럭저럭 견디다.
- **"One who by living is of use to many," he said, "has not the right to choose to die unless by dying he may be of use to more."** : 주어 One who ~ → 단수 has. of use = useful(of + 추상명사 = 형용사). has not the right = does not have the right의 옛 말투. unless = ~하지 않는 한. more = more people.
- **So he lived and studied—as we must—as long as it was in his control to keep doing so well and for the greater good** : as we must = 우리도 그래야 하듯(must 뒤 live and study 생략). as long as = ~하는 한(조건). 가주어 it – 진주어 to keep. doing so = 살고 공부하는 것.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brush (n.)	(짧은) 마주침	encounter	—
association	관계, 교류	connection	dissociation
paranoid	편집증적인	suspicious	trusting
delusion	망상	illusion	reality
accompany	동행하다	escort	abandon
capriciousness	변덕	fickleness	constancy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wait	기다리다	wait for	—
fallout	여파	aftermath	—
banish	추방하다	exile	welcome
desolate	황량한	barren	lively
misfortune	불행	adversity	fortune
make do with	~으로 견디다	manage with	—

내용 일치 첫 시련 = 스토아 반대파와의 인연 · 60 AD 플라우투스와 시리아로 · 조언 = '용기를 내 죽음을 기다리라' · 플라우투스가 죽을 때 '아마' 그 자리에 · 잠시 귀환 → 피소 음모로 세네카가 죽은 65 AD에 기아로스 추방(네로) · 고향에서 약 700마일 · 자결하지 않은 까닭 = 더 무거운 불행을 고를 이유가 없음 · 살아서 아직 쓸모 있음. **지칭** 167쪽 ¶2 him(a marked man) = Plautus, It(first brush) = 플라우투스를 따라간 망명 / ¶3 his dear friend = Plautus / ¶5 the one(in front of us) = misfortune, he(still had living to do) = Musonius / ¶6 doing so = 살고 공부하는 것.

> **한 줄 요약** 플라우투스에게 '용기를 내 죽음을 기다리라'고 조언했던 무소니우스는, 기아로스로 쫓겨나서도 살아서 쓸모 있는 한 죽음을 고를 권리가 없다고 믿고 살아 공부했다.

23-5 섬의 샘, 유배라는 시험 167쪽 ¶7 ~ 168쪽 ¶5

원문 위치 원서 167쪽 ¶7 ~ 168쪽 ¶5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7쪽 ¶7 둘째 문장	According to one source, he discovered an underground spring	전언 표지 · 서답형 후보
▲	167쪽 ¶7 둘째 문장	earning him the eternal gratitude …, most of whom were also political exiles	결과 분사구문 + 수량어 of whom
★	167쪽 ¶7 셋째 문장	not an evil or a hardship, but merely a kind of test	빈칸·요지 후보
▲	167쪽 ¶7 넷째 문장	So he did, rededicating himself …, playing advisor to	So + 주어 + 동사(정말 그러했다) + 분사 병렬
★	167쪽 ¶8 첫 문장	the fictional letters of a man named Apollonius of Tyana	허구 편지 — 사실로 단정 금지
▲	167쪽 ¶8 첫 문장	A testament to … is seen in	긴 주어 + 단수 동사 is
◆	167쪽 ¶8 셋째~여섯째 문장	he won't need it / Musonius will die like Socrates / but I will	지칭: he·him이 Apollonius·Musonius·Socrates 사이를 오감
▲	167쪽 ¶8 여섯째 문장	he was not prepared to defend himself, … but I will	생략(I will defend myself)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8쪽 ¶1 넷째 문장	What would you have felt if you had seen me playing the lyre like Nero?	가정법 과거완료 + see O -ing
●	168쪽 ¶1 다섯째 문장	The dates on this encounter make it hard to trust	반전 후보 → easy · 일화의 신빙성
★	168쪽 ¶2 셋째 문장	what he still had access to—the sun, water, air	요지 후보
★	168쪽 ¶3 셋째 문장	As bad as exile—or any adversity—is, it can make you better, if you so choose	요지 1순위 · 양보의 as
★	168쪽 ¶4 첫 문장	speaking not of the Stoic but of the famous Cynic	인물 — 6장 디오게네스와 혼동 주의
▲	168쪽 ¶5	would have never been so conceited as to claim …, but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he was	so ~ as to V + 생략(was improved)

내용

기아로스는 오늘날 사람이 살지 않는 몹시 메마르고 험한 섬이지만, 무소니우스는 자기 가르침대로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쓸모 있을 기회를 모두 붙잡았다. 한 기록에 따르면 그는 섬에서 땅속 샘을 찾아내, 대부분 그처럼 정치 유배자였던 섬 주민들의 영원한 감사를 받았다. 그가 유배를 악이나 고난이 아니라 일종의 시험, 곧 스스로 택한다면 덕에 더 가까이 갈 기회로 믿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렇게 했다. 다시 가르치고 쓰는 일에 몸을 바쳤고, 지중해 곳곳에서 찾아온 철학자와 고관들에게 조언자가 되어 주었다. 그 어두운 시절 커져 가던 그의 명성과 그가 보인 본보기는 티아나의 아폴로니오스라는 사람의 허구 편지에서도 볼 수 있다. 한 편지에서 아폴로니오스가 기아로스에서 그를 과감히 구출하는 꿈을 꾼다고 하자, 무소니우스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답한다. 참된 사람은 스스로 자기 결백을 증명하려 하고, 그러므로 자기 해방을 스스로 쥐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소크라테스처럼 죽을까 아폴로니오스가 걱정하자, 무소니우스는 그렇게 조용히 떠날 생각이 없다며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변호할 준비가 없어서 죽었지만 나는 변호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른 이야기도 그의 투지를 보여 준다. 트라세아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견유학파 데메트리오스가, 쇠사슬에 묶인 채 네로의 운하 공사에서 곡괭이질하는 무소니우스를 만났다고 한다. 무소니우스는 내가 그리스를 위해 지협을 파는 것이 마음 아프냐고, 내가 네로처럼 리라를 타는 모습을 보았다면 어땠겠느냐고 답했다고 전한다. 운하 공사 시기가 기아로스 유배 기간과 겹쳐 이 만남은 믿기 어렵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그의 성품이 어떤 평판을 얻었는지 보여 준다. 목마른 섬 주민들을 돕든 그리스를 위해 운하를 파든, 유배의 고난은 참된 철학자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빼앗긴 편안함은 어떤가? 무소니우스는 아직 누릴 수 있는 것, 곧 해와 물과 공기를 생각하기로 했다. 로마의 편의와 친구와 여행의 자유가 그리울 때면, 그는 자신과 동료 유배자들에게 "집에 있을 때도 우리는 온 땅을 누리지 않았고 모든 사람과 교류하지도 않았다"고 일깨웠다. 그러고는 가장 잘하는 일, 곧 선을 행할 기회를 찾는 일로 돌아갔다. 스토아에게는 가장 나쁜 상황에서도 이런 기회가 늘 있기 때문이다. 유배든 어떤 역경이든 아무리 나빠도, 스스로 택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 낫게 만들 수 있다. 그는 뒷날 스토아 디오게네스가 아니라 제논 이전의 유명한 견유학파 디오게네스를 두고, 유배가 그를 평범한 사람에서 철학자로 바꾸었다고 말했다. 유배는 사치로 병약해진 사람들을 더 사내다운 삶으로 단련했고, 만성병이나 통풍이 나은 사람들도 있었으니, 몸과 영혼 모두에서 해치기보다 돕는다는 것이다. 무소니우스는 자기 유배로 자신이 나아졌다고 주장할 만큼 자만하지 않았겠지만, 사실 그는 나아졌다.

어법

- **According to one source, he discovered an underground spring on the island, earning him the eternal gratitude of his fellow residents, most of whom were also political exiles** : According to one source = 한 기록에 따르면(전언 — 단정 금지). earning ~ = 결과의 분사구문. earn + IO + DO. most of whom = 수량어 + of + 관계대명사(= and most of them).
- **It's clear that he believed that exile was not an evil or a hardship, but merely a kind of test—a chance to move closer to virtue if one so chose** : 가주어 it + that절. not A but B. so = 앞 내용(덕에 다가가는 것)을 대신하는 부사. chose = 시제 일치.
- **So he did, rededicating himself to teaching and writing, playing advisor to the philosophers and dignitaries who visited him** : So + 주어 + 동사 = 정말 그러했다(앞말 확인 — So did he '그도 그랬다'와 구별). rededicate oneself to + 동명사. play advisor to = ~에게 조언자 역을 하다(역할 명사라 관사 없음).
- **A testament to Musonius's growing fame and the inspirational example he cast in those dark times is seen in the fictional letters** : 주어 = A testament(단수) → is seen. example 뒤 목적격 관계사 생략(he cast). cast an example = 본보기를 보이다.
- **Musonius writes back to say that he won't need it, because a true man undertakes to prove his own innocence and therefore has control of his own liberation** : 편지 내용을 생생하게 전하는 현재시제. it = 구출(rescue). undertake to V = ~하는 일을 떠맡다. undertakes · has가 주어 a true man을 공유.
- **What would you have felt if you had seen me playing the lyre like Nero?** : 가정법 과거완료(if + had p.p., would have p.p.) — 과거 사실의 반대. see + O + -ing = ~하고 있는 것을 보다.
- **As bad as exile—or any adversity—is, it can make you better, if you so choose** : As + 형용사 + as + S + V = 아무리 ~해도(양보, = Though exile is bad). 첫 as는 생략할 수 있다(Bad as exile is). if you so choose = 네가 그렇게 택한다면.
- **Musonius would have never been so conceited as to claim he was improved by his own exile, but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he was** : would have p.p. = ~했을 리 없다(과거에 대한 추측). so ~ as to V = ~할 만큼 …한. he was 뒤 improved 생략.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unpopulated	사람이 살지 않는	uninhabited	populated
gratitude	감사	thankfulness	ingratitude
exile	유배, 망명	banishment	return
dignitary	고관	official	—
testament	증거	proof, evidence	—
fictional	허구의	invented	factual
liberation	해방	release	captivity
deprive	빼앗다	strip, rob	provide
amenity	편의, 편의 시설	comfort	hardship
chronic	만성의	persistent	acute
austerely	검소하게	frugally	lavishly
conceited	자만하는	arrogant	modest

내용 일치 기아로스 = 오늘날 사람이 살지 않는 메마른 섬 · 땅속 샘 발견은 '한 기록'에 따른 것 · 주민 대부분 = 정치 유배자 · 유배 = 악이 아니라 시험 · 아폴로니오스의 편지 = 허구 · 데메트리오스와 운하 일화 = 날짜가 맞지 않아 믿기 어려움 · 해 · 물 · 공기 · 유배로 철학자가 된 사람 = 견유학파 디오게네스(스토아 디오게네스 아님) · 통풍 · 그 자신도 나아졌다(저자). **지칭** 167쪽 ¶8 it(won't need it) = 구출, he(worries) = Apollonius, he(was not prepared) = Socrates, I(will) = Musonius / 168쪽 ¶1 his last moments = Thrasea / ¶4 he(spent his time in Greece) = Diogenes, them(forced them) = 병약했던 사람들.

> **한 줄 요약** 무소니우스는 메마른 유배의 섬에서도 선을 행할 기회를 찾았고, 유배를 악이 아니라 덕에 다가갈 시험으로 여겨 그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23-6 이성의 의사, 돌아온 스승 168쪽 ¶6 ~ 169쪽 ¶4

원문 위치 원서 168쪽 ¶6 ~ 169쪽 ¶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8쪽 ¶6 둘째 문장	we were like doctors, treating ourselves with reason	분사구문 + 재귀대명사
◆	168쪽 ¶6 셋째 문장	that rock-hard, unbreakable citadel of a soul	밑줄 의미 · 제목 the Unbreakable의 출처
▲	168쪽 ¶6 셋째 문장	The power to think clearly …, that was what nursed	문두 명사구를 that으로 다시 받음 + what절
●	168쪽 ¶6 넷째 문장	smelling salts that "revive … but do not cure the disease"	반전 후보 → cure
★	168쪽 ¶7 둘째 문장	cold, heat, thirst, hunger, and hard beds	내용 일치 후보(단련 목록)
▲	168쪽 ¶7 셋째 문장	taught himself to be patient, even happy, while experiencing them	teach oneself to V + while -ing
▲	169쪽 첫 줄	Exile did come, and he was ready body and soul	강조의 did + 원형
★	169쪽 ¶1 첫 문장	When Galba succeeded Nero in 68 AD	숫자·인물 — 서답형 후보
▲	169쪽 ¶1 셋째 문장	Could a teacher who had experienced less adversity … have reached a student like that	could have p.p. 수사의문문
◆	169쪽 ¶2	When the student is ready, the teacher appears	밑줄 의미 후보
▲	169쪽 ¶3 첫 문장	had a habit of turning away students to test their resolve	habit of -ing + 목적의 to V
▲	169쪽 ¶3 넷째 문장	the more one pushes …, the more he inclines towards it	the 비교급, the 비교급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9쪽 ¶4 셋째 문장	awarded a thousand sesterces to a charlatan posing as a philosopher	숫자 · 전언(one witness)
◆	169쪽 ¶4 다섯째 문장	"Money is exactly what he deserves."	밑줄 의미 1순위 · he = 사기꾼

내용

이 놀라운 강인함과 솜씨는 어디서 왔을까? 무소니우스 루푸스는 우리가 이성으로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와 같다고 믿었다. 분명하게 생각하는 힘, 사안의 진실에 이르는 힘이 그가 지닌 바위처럼 단단하고 꺾이지 않는 영혼의 성채를 길렀다. 그는 지름길에도, "정신은 들게 하지만 병은 고치지 못하는" 각성제에도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배가 요구한 '사내다운' 삶을 진지하게 옹호했다. 로마에 있을 때, 그것도 영향력이 한창일 때조차 그는 추위와 더위, 갈증과 배고픔, 딱딱한 침대를 일부러 찾았다. 이런 조건이 주는 불편한 느낌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겪는 동안 참을성 있게, 나아가 즐겁게 지내도록 스스로를 가르쳤다. 이런 훈련으로 "몸은 강해지고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며, 튼튼해지고 어떤 일에도 준비가 된다"고 그는 말했다. 유배는 정말 찾아왔고, 그는 몸과 마음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좋은 시절도 돌아왔고, 그는 그것에도 준비되어 있었다. 서기 68년 갈바가 네로의 뒤를 잇자 무소니우스는 로마로 돌아와 다시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명성은 그 뒤 10년 동안 커졌고, 마침내 네로의 비서 가운데 한 사람의 노예로 오래 고통받았던 에픽테토스가 그의 제자 대열에 들게 된다. 역경을 덜 겪고 덜 단호하고 덜 자립적인 스승이었다면, 그토록 힘든 삶을 산 제자에게 가닿을 수 있었을까?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 그리고 때로는 완벽한 제자야말로 스승의 가장 좋은 면을 끌어내는 데 필요한 존재다. 무소니우스는 제자들의 결심을 시험하려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습관이 있었다. 그가 이 방법을 에픽테토스에게 썼다면, 3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지시받으며 산 에픽테토스는 그 도전에 맞섰으리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 에픽테토스는 무소니우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한다. 돌은 그 성질 때문에 공중에 던져도 땅으로 돌아온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을 그가 타고난 삶에서 밀어낼수록 그는 그쪽으로 더 기운다. 무소니우스는 에픽테토스처럼 부자와 그들의 돈이 낳는 타락을 뚜렷이 싫어했고, 그래서 그들을 놀리기를 즐겼다. 한 증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철학자 행세를 하는 사기꾼에게 1,000세스테르티우스를 준 적이 있다. 누군가 나서서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이고 그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자, 무소니우스는 재미있어하며 "돈이야말로 그가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답했다.

어법

- **Musonius Rufus believed that we were like doctors, treating ourselves with reason** : 시제 일치로 were. treating = 분사구문(의사처럼 '치료하면서').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므로 재귀대명사 ourselves.
- **The power to think clearly, to get to the truth of a matter, that was what nursed that rock-hard, unbreakable citadel of a soul that he had** : 문두의 명사구(The power ~)를 that이 다시 받는 강조 문체. to think · to get = power를 꾸미는 형용사적 to부정사. what nursed ~ = 관계대명사 what절(보어). a citadel of a soul = 성채 같은 영혼(A of a B = B 같은 A).
- **He was not interested in shortcuts, he said, or smelling salts that "revive . . . but do not cure the disease."** : be interested in A or B — 삽입절 he said가 끼어 있어도 or 뒤의 smelling salts 역시 in의 목적어.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smelling salts가 복수 → revive · do).
- **He familiarized himself with the uncomfortable feelings these conditions brought about and taught himself to be patient, even happy, while experiencing them** : familiarize oneself with = ~에 익숙해지다. feelings 뒤 목적격 관계사 생략. teach oneself to V. while experiencing = while (he was) experiencing.

- **Exile did come, and he was ready body and soul. Good times returned as well, and for this he was ready too.** : did come = 강조의 do(정말로 왔다). body and soul = 몸과 마음 모두(부사적). for this he was ready = 전치사구를 앞으로 낸 어순(= he was ready for this).
- **Could a teacher who had experienced less adversity, who was less determined and self-sufficient, have reached a student like that—who had had such a difficult life?** : could have p.p.를 쓴 수사의문문(=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관계절 두 개가 a teacher를 꾸민다. had had = have의 과거완료.
- **We can imagine him trying this tactic on Epictetus, who, after three decades of being told what he could and could not do, would have risen to the challenge** : imagine + O + -ing. being told = 수동 동명사(지시를 '받는' 것). would have p.p. = ~했을 것이다(저자의 상상 — 기록이 아니다).
- **"Likewise, the more one pushes the intelligent person away from the life he was born for, the more he inclines towards it."** : the + 비교급 ~, the + 비교급 … = ~할수록 더 …하다. the life 뒤 관계사 생략, 전치사 for가 끝에 남았다(be born for). it = the life.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itadel	성채, 요새	fortress	—
revive	정신이 들게 하다	rouse	—
proponent	옹호자	advocate	opponent
necessitate	필요로 하다	require	—
familiarize	익숙하게 하다	accustom	—
sturdy	튼튼한	robust	frail
stature	명성, 위상	standing	obscurity
self-sufficient	자립적인	independent	dependent
resolve (n.)	결심	determination	hesitation
incline	기울다	lean, tend	—
distaste	혐오	dislike	liking
taunt	놀리다, 조롱하다	mock	praise
charlatan	사기꾼	fraud, impostor	—

내용 일치 우리 = 이성으로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 · 지름길과 각성제(정신만 들게 하고 병은 못 고침) 사절 · 로마에서도 추위 · 더위 · 갈증 · 배고픔 · 딱딱한 침대를 찾음 · 68 AD 갈바가 네로를 이음 → 귀환 · 강의 재개 · 10년 동안 명성 · 에픽테토스 = 네로의 비서 중 한 사람의 노예였던 사람 · 제자를 돌려보내 결심을 시험(에픽테토스에게 쓴 장면은 상상) · 사기꾼에게 1,000세스테르티우스(한 증인의 전언). **밑줄 의미** citadel of a soul = 밖에서 무엇이 덮쳐도 함락되지 않는 요새 같은 영혼 / Money is exactly what he deserves = 철학자를 흉내 낸 가짜에게는 덕이 아니라 돈, 곧 무소니우스가 하찮게 본 것이 딱 맞는 대가라는 조롱.

> **한 줄 요약** 이성으로 자신을 치료하고 일부러 고난에 몸을 익힌 무소니우스는 유배에도 좋은 시절에도 준비되어 있었고, 돌아온 로마에서 에픽테토스 같은 제자를 길렀다.

23-7 누가 권력을 쥐든, 편애 없는 정의 169쪽 ¶5 ~ 170쪽 ¶8

원문 위치 원서 169쪽 ¶5 ~ 170쪽 ¶8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9쪽 ¶5 첫 문장	Musonius would spend some time lying low	spend + 시간 + -ing
▲	169쪽 ¶5 둘째 문장	That's certainly how Seneca or Cicero would have played it	how절 보어 + would have p.p.
★	169쪽 ¶5 셋째 문장	three more emperors would follow Galba within months	숫자 — 내용 일치 후보
★	169쪽 ¶6	his entire approach was to be indifferent to who was in power	빈칸·요지 1순위
★	169쪽 ¶7 둘째 문장	Arulenus Rusticus—whom Thrasea had advised	인물 — 21 · 25장 연결
▲	169쪽 ¶7 셋째 문장	the troops he was attempting to warn against engaging in civil strife	관계사 생략 + warn against -ing
●	169쪽 ¶8 첫 문장	Musonius's calls went unheeded—in fact he was heckled	반전 후보 → heeded
◆	170쪽 ¶1 첫 문장	as it had for Cato, played no favorites	밑줄 의미 · 대동사 had
★	170쪽 ¶1 셋째 문장	Sometime around 70 AD … Publius Egnatius Celer … Barea Soranus	숫자·인물 — 서답형 후보
▲	170쪽 ¶1 넷째 문장	pitted Musonius not only against …, but also against Demetrius the Cynic	pit A against B + not only A but also B
★	170쪽 ¶2 셋째·넷째 문장	the toil passes, but the good remains / the pleasure passes, but the dishonor remains	요약 1순위 · 13장 104쪽 ¶3 카토의 말과 비슷한 대구
▲	170쪽 ¶4 둘째 문장	No matter the verdict, to attack an informant of an emperor … was a risky move	No matter + 명사 + to부정사 주어
▲	170쪽 ¶4 셋째 문장	Perhaps wishing to be rid of the Stoics entirely	추측 + 분사구문 · be rid of
●	170쪽 ¶4 넷째 문장	originally exempted … exiled personally … for a term of three years	반전·숫자 후보
▲	170쪽 ¶7 첫 문장	Even this, Musonius found a way to be philosophical about	목적어 전치 + 전치사 잔류

내용

두 번의 고통스러운 유배를 겪었으니 무소니우스가 한동안 몸을 낮추리라 생각할 수도 있다. 세네카나 키케로라면 분명 그렇게 처신했을 것이다. 로마는 변동과 공포 속에 있었고, 몇 달 사이에 세 명의 황제가 갈바의 뒤를 더 이을 터였다. 그러나 무소니우스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삶과 행동의 방식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사실 그의 태도는 누가 권력을 쥐든 무관심한 것이었다. 비텔리우스의 치세가 저물고 베스파시아누스의 군대가 로마로 진군해 오던 무렵, 무소니우스는 충돌을 막는 사절로 나서기로 했다. 함께 간 아룰레누스 루스티쿠스는 트라세아가 마지막 말 가운데 어떤 정치인이 될지 생각해 보라고 조언했던 사람인데, 몸싸움 속에 크게 다쳤다. 타키투스는 무소니우스가 난투 속으로 몸을 던졌다가, 내전에 뛰어들지 말라고 경고하려던 바로 그 군인들에게 짓밟혀 죽을 뻔했다고 전한다. 그의 외침은 무시당했고 오히려 야유를 받았으며, 곧 거리에 피가 흘렀다. 비텔리우스는 전임자 갈바가 죽은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성난 군중에게 사지가 찢겼다. 이제 황제는 베스파시아누스였고, 로마는 다시 실력자의 손에 들어갔다. 베스파시아누스는 그가 비텔리우스를 섬긴 일을 문제 삼을까? 그는 또 유배될까, 아니면 스토아라는 위협과 엮였다는 이유로 끝내 죽임을 당할까? 이런 생각 가운데 어느 것도 그의 시도를 막지 못했고, 옳은 것에 대한 헌신을 꺾지도 못했다. 카토에게 그랬듯 정의에 대한 이 헌신은 누구도 봐주지 않았다. 내전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직후인 서기 70년 무렵, 그는 동료 스토아 푸블리우스 에그나티우스 켈레르를 기소했다. 켈레르는 다른 스토아들을 네로에게 밀고했고, 바레아 소라누스라는 스토아의 처형에 한몫했다. 스토아 배신자뿐 아니라 켈레르를 변호하기로 한 견유학파 데메트리오스와도 맞선 대단한 재판이었고, 정의가 드물어진 시대에 거둔 힘겨운 정의의 승리였다. 남아 있는 그의 단편은 그가 왜 이런 재판을 벌였을지 보여 준다. 수고를 들여 선을 이루면 수고는 지나가고 선은 남지만, 즐겁게 부끄러운 일을 하면 즐거움은 지나가고 부끄러움은 남는다. 아무리 어려워도 옳은 일을 해야 하고, 보상이 크더라도 그른 일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정의에 대가가 따르리라는 것을 알았음에 틀림없다. 판결이 어떻든 황제의 밀고자를 공격하는 일은, 그 황제가 네로처럼 미움받는 자라 해도 위험한 수였다. 아마 스토아를 완전히 없애고 싶었는지, 1년쯤 뒤 베스파시아누스는 모든 철학자에게 일괄 추방령을 내렸다. 무소니우스는 처음에는 면제되었지만, 얼마 뒤 베스파시아누스에게 개인적으로 3년 유배를 당했다. 그가 행한 선은 남았고, 그 자신은 쫓겨났다.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모른다. 그는 어차피 그 이유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테니 어울리는 일이다. 화낼 만했지만, 세 번째로 고향에서 쫓겨나 난민의 삶으로 돌아가면서도 그는 이것을 철학적으로 받아들일 길을 찾았다. 남은 단편에서 그는, 우리 자신이 폭군보다 훨씬 나쁜데 무엇으로 그들을 고발하겠느냐고, 우리도 그들과 같은 충동을 지녔으나 그것을 채울 같은 기회가 없을 뿐이라고 말한다. 아니면 그는 원치 않던 방식으로 일어났지만 결국 최선이 된 일이 삶에 이미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보라던 자기 말을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어법

- **One might think that after two painful exiles, Musonius would spend some time lying low** : might = 조심스러운 가정(~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spend + 시간 + -ing. lie low = 몸을 낮추다(lie-lay-lain, 여기서는 -ing형 lying).
- **Rome was in a state of flux and fear—three more emperors would follow Galba within months—but Musonius made no effort to hide what he thought was the proper way to live and act** : would = 과거에서 본 미래. what he thought was ~ = what(주어) + 삽입절 he thought + was. make no effort to V = ~하려 하지 않다.
- **In fact, his entire approach was to be indifferent to who was in power** : 보어 자리의 명사적 to부정사. be indifferent to + 명사절(who was in power — who가 주어인 간접의문문).
- **Tacitus tells us that Musonius threw his own body into the fray and was nearly trampled to death by the troops he was attempting to warn against engaging in civil strife** : threw(능동) · was trampled(수동)의 병렬. troops 뒤 목적격 관계사 생략. warn + O + against -ing = ~하지 말라고 경고하다.
- **This commitment to justice, as it had for Cato, played no favorites** : as it had (played no favorites) for Cato — 대동사 had로 반복을 줄였다. play favorites = 편애하다 → played no favorites = 누구도 봐주지 않았다.

- **It was an epic case that pitted Musonius not only against a Stoic traitor, but also against Demetrius the Cynic, who chose to represent Celer** :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an epic case). pit A against B = A를 B와 맞붙이다. not only A but also B(전치사구끼리 병렬). who = 계속적 용법.
- **Musonius must have known that justice against Celer would come at a cost** : must have p.p. = ~했음에 틀림없다(강한 추측). come at a cost = 대가가 따르다. would = 시제 일치.
- **No matter the verdict, to attack an informant of an emperor—even one as reviled as Nero—was a risky move** : No matter + 명사 = ~이 무엇이든(No matter what the verdict was의 축약). to부정사구 주어 → 단수 was. one = an emperor.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lie low	몸을 낮추다	keep a low profile	—
flux	끊임없는 변화	instability	stability
indifferent	무관심한	unconcerned	concerned
emissary	사절	envoy	—
forestall	미리 막다	prevent	allow
scuffle	몸싸움	brawl	—
unheeded	무시된	ignored	heeded
heckle	야유하다	jeer	cheer
informant	밀고자	informer	—
traitor	배신자	betrayer	loyalist
reviled	미움받는	despised	revered
exempt	면제하다	excuse	subject
despot	폭군	tyrant	—

내용 일치 두 번의 유배 뒤에도 숨지 않음(세네카 · 키케로라면 몸을 낮췄을 것) · 몇 달 사이 세 황제가 갈바를 이음 · 누가 권력을 쥐든 무관심 · 비텔리우스 말기의 사절 · 동료 아룰레누스 루스티쿠스 중상 · 짓밟혀 죽을 뻔함(타키투스) · 야유 · 70 AD 무렵 켈레르 기소(네로의 밀고자 · 바레아 소라누스 처형에 가담) · 변호 = 데메트리오스 · 힘겨운 승리 · 철학자 일괄 추방 때 처음엔 면제 → 3년 유배(베스파시아누스) · 이유는 알 수 없음. **지칭** 169쪽 ¶7 he(would be) = Arulenus Rusticus / ¶9 him(against him) = Musonius / 170쪽 ¶1 it(as it had for Cato) = commitment to justice, who(chose to represent Celer) = Demetrius / ¶4 one(as reviled as Nero) = an emperor / ¶7 they · theirs = tyrants.

> **한 줄 요약** 누가 권력을 쥐든 옳다고 믿는 것을 숨기지 않은 무소니우스는 동료 스토아 켈레르까지 기소해 정의를 세웠고, 그 뒤 세 번째 유배를 떠나서도 그것을 철학적으로 받아들였다.

23-8 왕에게도 같은 가르침, 늦게가 아니라 잘 170쪽 ¶9 ~ 172쪽 ¶2

원문 위치 원서 170쪽 ¶9 ~ 172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70쪽 ¶9 둘째 문장	make the best of a bad situation	빈칸 후보
▲	170쪽 ¶10 첫 문장	He might not have been able to reach …, but he did find	might not have p.p. + 강조의 did
★	170쪽 ¶10 둘째 문장	That Kings Also Should Study Philosophy … a Syrian king whom he advised	강의 제목·인물 — 26장 연결
★	170쪽 ¶10 셋째 문장	kept his teachings the same no matter how powerful or powerless his students	요지·빈칸 1순위 · 서답형 단어의 출처
▲	170쪽 ¶10 넷째 문장 ~ 171쪽 첫 줄	there is no position so high or so low that it is not improved by the four virtues	no + 명사 + so ~ that … not(이중 부정)
★	171쪽 첫 줄	justice, temperance, wisdom, and courage	네 가지 덕 — 내용 일치 후보
●	171쪽 ¶1 첫 문장	"The ruin of the ruler and the citizen alike is wantonness."	반전 후보 → restraint
▲	171쪽 ¶1 넷째 문장	it was these exact deficiencies … that had brought him to Syria	강조구문 + must have been
◆	171쪽 ¶1 다섯째 문장	the rapt silence … the sign of a student whose mind was being blown	165쪽 ¶5의 침묵과 연결
▲	171쪽 ¶1 여덟째 문장	But given a good man, would he not be entitled to be called a philosopher?	given + 명사 + 수동 부정사
▲	171쪽 ¶2 셋째 문장	in this way and no other will you best please me	제한의 부사구 문두 → 도치
★	171쪽 ¶3~¶4	78 AD Titus / 93 AD Domitian / Epaphroditus … twenty-five years earlier	숫자·인물 — 내용 불일치 후보
▲	171쪽 ¶5 첫 문장	If Musonius was still alive by this point, it would have marked his fourth exile	알 수 없는 과거의 가정 + would have p.p.
◆	171쪽 ¶5 다섯째 문장	no one would take away his "ability to endure exile."	요약 후보 · 제목 the Unbreakable
★	172쪽 첫 줄	he is blessed who dies not late but well	통합 사고 · 순서 1순위

내용

다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시리아에서 무소니우스는 사람들을 모아 가르쳤다. 이번에도 그는 스토아가 늘 하려는 일, 곧 나쁜 상황을 최대한 좋게 만드는 일을 했다. 로마를 다스리는 정신 나간 군주들에게는 가닿지 못했을지 몰라도, 그는 외국에서 기꺼이 배우려는 왕족 제자들을 찾았다. 『왕들도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라는 강의에서 그는 자신이 조언한 시리아의 한 왕을 지나가듯 언급한다. 헤롯 대왕의 손자를 가르칠 때만큼 해방 노예를 가르칠 때도 편안했던 그는, 제자가 얼마나 힘이 있든 없든 가르침을 바꾸지 않았다. 자기 고난에서 배웠듯, 정의와 절제와 지혜와 용기라는 네 가지 덕으로 나아지지 않을 만큼 높거나 낮은 자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는 왕에게 "통치자와 시민을 함께 망치는 것은 방종"이라고 말하고, 절제의 힘과 지나침의 위험, 정의의 필요를 길게 이야기했다. 모두 그가 직접 겪은 일이었다. 애초에 그를 시리아로 보낸 것도 무능한 황제들이 줄줄이 드러낸 바로 이 결함들이었으니, 그의 가르침은 설득력 있고 깊이 개인적이었을 것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고서 좋은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묻고, 그럴 수 없으며 좋은 사람은 철학자라 불릴 자격이 있다고 답했다. 철학은 이상적인 선을 추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강의가 끝나자 젊은 왕은 넋을 잃었고, 그에게 잔인했던 로마 황제들과 달리 고마워하며 부와 권력과 쾌락까지 무엇이든 주겠다고 했다. 무소니우스는 자신이 바라는 유일한 호의는 왕이 훌륭하다고 여긴 이 가르침에 충실한 것이며, 그렇게 해야만 자신을 가장 기쁘게 하고 왕 자신에게도 이롭다고 답했다. 마침내 그는 서기 78년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티투스에게 유배에서 부름받았다. 티투스는 1년 안에 황제가 되었고 3년 안에 죽었다. 뒤를 이은 도미티아누스도 시리아 왕이 들은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지만,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고 편집증적인 길을 택했다. 무소니우스는 꿋꿋이 버티며 에픽테토스를 제자로 받아 그 못지않게 만만찮은 스토아 스승으로 길렀다. 서기 93년 도미티아누스는 오래전 트라세아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아룰레누스 루스티쿠스에게 사형을 명했다. 이어 헬비디우스 프리스쿠스의 아들과, 에픽테토스의 옛 주인으로 25년 전 네로의 자결을 도운 노예 출신 에파프로디투스를 죽였고, 에픽테토스를 포함한 모든 철학자를 로마에서 추방했다. 그때 무소니우스가 살아 있었다면 이것이 넷째 유배였을 것이다. 그가 이 마지막 시련까지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살인적인 폭군들 아래에서 70대나 80대까지 산 것만도 놀랍다. 그는 거듭 조국을 빼앗겼지만, 누구도 자신의 "유배를 견디는 능력"은 빼앗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서든 쫓겨난 어느 바위섬에서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믿는 바에 헌신했다. 철학이란 이성으로 옳고 마땅한 것을 찾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일 뿐이라는 말을, 그는 유배자로, 스승으로, 남편이자 아버지로, 그리고 마침내 죽어 가는 사람으로 살아 냈다. 그저 오래 사는 것은 결코 그의 목표가 아니었다. 운명의 여신들이 모두에게 똑같이 죽음의 몫을 정해 두었으니 "늦게가 아니라 잘 죽는 사람이 복되다"고 그의 단편은 말한다. 끝이 언제 왔든 그는 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토록 많은 스토아의 끝을 지켜보며 어떤 이에게는 때가 되었으니 떠나라고, 어떤 이에게는 아직 할 일이 있으니 버티라고 조언했던 그는 언젠가 자기 차례도 오리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는 "오늘을 마지막 날로 여기지 않으면 오늘을 잘 살 수 없다"며 그렇게 살려고 애썼고, 마침내 차례가 왔을 때 평생의 모든 역경을 마주했던 것과 같은 존엄과 평정으로 이 세상을 떠났다.

어법

- **Once again, he did what a Stoic seeks to always do: make the best of a bad situation** : what = 관계대명사(~하는 일). to always do = to와 동사 사이에 부사가 낀 분리부정사. 콜론 뒤 원형 make ~ = what절의 내용. make the best of = (나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다.
- **He might not have been able to reach or help the deranged sovereigns who controlled Rome, but he did find willing royal students abroad** : might not have p.p. = ~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추측). did find = 강조의 do(정말로 찾았다).
- **Musonius kept his teachings the same no matter how powerful or powerless his students** : keep + O + 보어(the same). no matter how + 형용사 + 주어 = 아무리 ~하더라도 — 원문은 끝의 were를 생략했다(his students were).
- **there is no position so high or so low that it is not improved by the four virtues** : no + 명사 + so ~ that ... not = ...하지 않을 만큼 ~한 —은 없다(이중 부정 → 모든 자리가 나아진다). it = position. is improved = 수동.

- **it was these exact deficiencies in the parade of incompetent emperors that had brought him to Syria in the first place, so his lessons must have been convincing and deeply personal** : It was ~ that 강조구문(강조되는 주어가 복수 deficiencies → had brought). in the first place = 애초에. must have p.p. = ~였음에 틀림없다(추측).
- **But given a good man, would he not be entitled to be called a philosopher?** : given + 명사 = ~이 주어지면(전치사처럼 쓰는 given). be entitled to V = ~할 자격이 있다. to be called = 수동 부정사.
- **for in this way and no other will you best please me and benefit yourself** : for = 접속사(왜냐하면). 제한의 부사구(in this way and no other — 오직 이 방법으로)가 문두에 나와 조동사 도치(will you please). best = 부사(가장).
- **"Since the Fates have spun out the lot of death for all alike," one of his fragments explains, "he is blessed who dies not late but well."** : spin-spun-spun(have spun = 현재완료). he who ~ = ~하는 사람 — 관계절이 보어 뒤로 떨어졌다(= He who dies ... is blessed). not A but B(late · well = 부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hold court	(사람들을 모아) 가르치다, 이야기하다	preside	—
deranged	정신 나간	insane	sane
sovereign	군주	monarch	subject
offhandedly	지나가듯	casually	deliberately
temperance	절제	moderation	excess
wantonness	방종	dissipation	restraint
deficiency	결함	shortcoming	strength
rapt	넋을 잃은	absorbed	distracted
spellbound	매혹된	enthralled	bored
commendable	훌륭한, 칭찬할 만한	praiseworthy	blameworthy
persevere	꿋꿋이 버티다	persist	give up
undaunted	굴하지 않는	fearless	discouraged
longevity	장수	long life	—
poise	평정	composure	agitation

내용 일치 세 번째 유배지 = 다시 시리아 · 강의 『왕들도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에서 시리아 왕을 지나가듯 언급 · 해방 노예에게나 헤롯 대왕의 손자(문맥상 이 시리아 왕)에게나 같은 가르침 · 네 가지 덕 = 정의 · 절제 · 지혜 · 용기 · 망침의 원인 = 방종 · 보답 제안 → 이 가르침에 충실하라 · 78 AD 티투스의 소환 · 93 AD 아룰레누스 루스티쿠스 사형 · 헬비디우스의 아들 · 에파프로디투스 · 철학자 추방 · 넷째 유배였을지 알 수 없음 · 70~80대까지. **밑줄 의미** make the best of a bad situation = 나쁜 처지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음 / ability to endure exile = 조국은 빼앗을 수 있어도 견디는 힘은 빼앗을 수 없음 / dies not late but well = 삶의 길이가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가 복을 정함 / his number was up = 그의 차례(죽을 때)가 왔다.

> **한 줄 요약** 왕이든 해방 노예든 같은 가르침을 전한 무소니우스는 폭군들의 박해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오래가 아니라 잘 죽는다는 자기 말대로 존엄하게 세상을 떠났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Lives of the Stoics [Chapter 23 MUSONIUS]

범위	Musonius Rufus the Unbreakable (원서 PDF 164~172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Musonius taught that hardship is an ordinary part of being alive. To bear the troubles we meet for goodness's sake more cheerfully, he advised, we should recall how much people willingly endure for worthless goals: lovers chasing shameful desires, others laboring to get rich or to become famous, all of them choosing this pain freely. If we are going to struggle anyway, why not struggle toward a place truly worth reaching? It is far better, he argued, to work at mastering our own desires than at winning another man's wife, and to train ourselves to need little rather than toil for money.

① We should avoid hardship whenever it is possible to do so.
② Since suffering cannot be avoided, we should endure it for the sake of virtue.
③ People who chase fame and money suffer less than philosophers do.
④ We should work harder for wealth than for virtue.
⑤ Hardship is a sign that we have chosen the wrong goals.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first-century Rome, Musonius held a belief that many found shocking: women, he said, ought to be educated just as men were. Two of the twenty-one lectures of his that survive argue firmly that women should be treated well and that they are fully capable of doing philosophy. Most people of his day regarded women as little more than possessions, so his view was far from ordinary. Yet independent thought lies at the heart of Stoic training, and Musonius was able to see what was fair beyond the limits of his own age. Women, he wrote, long for virtue as much as men do and delight just as much in noble and just actions. Why, then, should only men study how to live well?

① Why Roman Women Turned Away from Philosophy
② A Bold Claim: Philosophy Is for Women, Too
③ Musonius's Twenty-One Lectures on Marriage
④ How Stoics Learned to Obey the Customs of Their Times
⑤ Women as Property: The Law of Ancient Rome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Exile took a great deal from Musonius: the comforts of Rome, the company of friends, the freedom to travel. Rather than dwell on those losses, he turned his mind to what was still available to him, such as sunlight, water, and air. Even at home, he reminded his fellow exiles, no one had enjoyed the entire earth or known every person in it. Then he went back to what he did best, looking for chances to do good, for a Stoic believes such chances never disappear, even in the darkest times. Exile, like any hardship, is bad, but it can improve us if we decide to let it. Musonius probably would never have said so of himself, yet his own exile did make him a better man.

① Exile is an evil that no philosopher can truly overcome.
② We should never complain about losing our comforts.
③ Adversity can make us better if we choose to use it well.
④ Living in a city is more pleasant than living on an island.
⑤ A modest person never admits that he has changed.

4. 밑줄 친 a flute player performing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Musonius had little patience for praise and applause, which he considered a waste of time for listeners and speakers alike. Suppose a philosopher is urging, correcting, or reasoning with an audience, and the listeners respond with stale compliments, loud shouts, and wild gestures, carried away by the charm and rhythm of his speech. In that case, he warned, both sides are losing their time, because what the crowd is really listening to is a flute player performing, not a philosopher. For Musonius, the true mark of success was silence. A quiet audience was an audience that was actually thinking, struggling with the hard ideas being presented to it.

① a speaker whose words please the ear without making people think
② a teacher who uses music to make difficult ideas clear
③ a philosopher who speaks too softly to be heard
④ a performer who is paid more than any philosopher
⑤ a listener who refuses to applaud a good speech

5. 밑줄 친 Money is exactly what he deserve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Like his student Epictetus, Musonius developed a clear dislike for wealthy people and for the way money corrupts them, and he enjoyed making fun of them. One witness reports that he once handed one thousand sesterces to a fraud who was pretending to be a philosopher. Someone protested that the fellow was lying and did not deserve the gift. Musonius was not upset; he found the complaint amusing. "Money is exactly what he deserves," he answered. Coming from a man who had no respect for riches, the reply was less a kindness than a joke at the fake philosopher's expense.

① Money, which has little true worth, is the right reward for a fake.
② The man had honestly earned the money by teaching others.
③ Every philosopher should be paid well for his work.
④ Even a liar needs money to survive in a great city.
⑤ Money will someday turn the liar into an honest man.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The growing fame of Musonius in those dark years can be seen even in a set of fictional letters bearing the name of Apollonius of Tyana. One of these letters has Apollonius dreaming of daringly freeing Musonius from Gyara. Musonius replies that ① he needs no such help, because a true man proves his own innocence and so holds the key to his own freedom. Apollonius writes again to say that he is worried about ② him; he fears his friend will end up like Socrates. But Musonius has no plan to go quietly. Socrates, ③ he reportedly answers, lost his life because ④ he was not ready to speak in his own defense, but ⑤ he himself would be.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Musonius first ran into serious trouble because of his ties to the Stoic Opposition. One of its members was Gaius Rubellius Plautus, whom the suspicious Nero had come to see as a threat. In 60 AD, when Plautus was sent into exile in Syria, Musonius went with him. He urged his friend to be brave and to wait for death, and he was probably present when Nero's men killed Plautus. Afterward, Musonius was permitted to come back to Rome, but not for long. In 65 AD, after the Pisonian conspiracy had cost Seneca his life, Nero sent Musonius to the bleak island of Gyara.

① 무소니우스는 스토아 반대파와 아무 관계가 없었다.
② 무소니우스는 서기 60년 플라우투스와 함께 시리아로 갔다.
③ 무소니우스는 플라우투스에게 무기를 들고 맞서라고 권했다.
④ 무소니우스는 플라우투스가 죽은 뒤 다시는 로마에 돌아가지 못했다.
⑤ 무소니우스는 세네카가 죽기 전에 기아로스로 추방되었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Musonius was finally called back from exile in 78 AD by Titus, the son of Vespasian. Titus became emperor within a year and was dead within three. The next ruler, Domitian, could have learned from the lessons Musonius had once given a Syrian king, but he chose cruelty, violence, and suspicion instead. Musonius kept going, taking on Epictetus as a pupil and shaping him into a Stoic teacher as formidable as himself. In 93 AD, Domitian condemned Arulenus Rusticus to death for having supported Thrasea long before. He also killed Helvidius Priscus's son and Epaphroditus, who had once owned Epictetus. He even drove all philosophers out of Rome.

① 무소니우스는 서기 78년 티투스에 의해 유배에서 불려 왔다.
② 티투스는 황제가 된 지 오래지 않아 죽었다.
③ 도미티아누스는 시리아 왕처럼 무소니우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④ 도미티아누스는 트라세아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아룰레누스 루스티쿠스에게 사형을 내렸다.
⑤ 도미티아누스는 로마에서 모든 철학자를 추방했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Hard work and endurance stood at the center of everything Musonius taught. In this he resembled Cleanthes, who centuries earlier ① had paid for his philosophical studies by working with his hands. In a lecture on the kinds of work that suit a philosopher, Musonius spoke ② highly of such labor. Almost no task, he believed, is beneath our dignity as long as it ③ is done carefully and in a proper spirit. Small wonder that he returned to this theme so often, since he, like many other Stoics, ④ was to discover that life had plenty of hardships in store. The hardships ⑤ what awaited him were not long in coming.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Where did Musonius find such strength? He believed that we all act as doctors, (A) [healing / healed] ourselves by means of reason. Clear thinking, the ability to get at what is really true, was what built up the unbreakable fortress of his soul. He had no interest in quick fixes, which only wake a patient up without curing the illness. Even in Rome, at the peak of his influence, he deliberately exposed himself to hunger, thirst, heat, cold, and hard beds, and he taught himself to stay patient and even cheerful while (B) [enduring / endured] them. Such training, he said, makes the body strong and prepared for any kind of work. When exile came, he was prepared in body and soul, and when good times (C) [returned / were returned], he was ready for those too.

	(A)	(B)	(C)
①	healed	enduring	were returned
②	healing	endured	returned
③	healing	enduring	were returned
④	healed	endured	returned
⑤	healing	enduring	returned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As Vitellius's rule was nearing its end and Vespasian's armies were closing in on the city, Musonius agreed to act as an envoy in the hope of ① preventing the fighting. His companion on the mission, Arulenus Rusticus, was seriously ② injured in a clash. According to Tacitus, Musonius threw himself into the struggle and was almost trampled underfoot by the very soldiers he was trying to ③ warn against civil war. His appeals were ④ welcomed; in fact, the soldiers jeered at him, and before long blood ran through the streets. A furious mob tore Vitellius apart, and Vespasian took the throne. Would the new emperor exile Musonius again, or even have him killed? None of these ⑤ dangers had kept him from trying.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Banished to Gyara, Musonius had to ask himself whether he should take his own advice and bravely wait for death. He did not end his life. He had once put a question to Thrasea: why pick a heavier misfortune when we can cope with the one we already have? We can learn to accept whatever difficulties fortune hands us. Besides, he felt that he still had more living to do. In his view, a person who _____ has no right to choose death, unless dying would help even more people. So he went on living and studying, as long as he could do it well.

① benefits many people by staying alive
② has already lived a long and happy life
③ cannot bear the hardships of exile
④ wishes to follow the example of Socrates
⑤ is afraid of what others will say about him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These were lessons he had learned the hard way, for it was exactly such faults in Rome's emperors that had driven him into Syrian exile to begin with.

Musonius told the young Syrian king that a lack of restraint ruins rulers and citizens alike. (①) He went on to explain why self-control brings strength, how dangerous excess is, and why justice is needed. (②) Surely, then, the king listened in the deep silence Musonius had once described as the mark of a student truly moved. (③) A good king, Musonius argued, must first be a good man. (④) The grateful king then offered him anything in his power to give. (⑤) Musonius asked for just one thing: that the king stay true to the teaching he had praised.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Cato, Rome's man of iron, ultimately had to stand up to only one emperor. Thrasea suffered greatly under Nero, but his friend Musonius Rufus endured a life even harder. ① Born into the equestrian class in the time of Tiberius, Musonius soon became famous as both a philosopher and a teacher. ② People of his own day called him the "Roman Socrates," and figures as different as Christian writers and Marcus Aurelius later praised him. ③ Gyara, the dry and rugged island where he would one day be exiled, has no inhabitants today. ④ Seneca and Cicero enjoyed their high places in Roman society, but he was a humble man. ⑤ He had neither senatorial rank nor great wealth, and he never went looking for fame or power.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Philosophy, Musonius taught, is simply using reason to find what is right and then putting it into action. He did not just say this; he lived it as an exiled man, as a teacher, and as husband and father.

(A) To die that way was exactly what Musonius was ready to do whenever his end arrived. Having advised some Stoics to leave when their time came and others to keep going, he must have known that his own turn would come.

(B) Living a long time had never been his aim. As one of his sayings puts it, since death is the same lot for everyone, the one who dies well, not the one who dies late, is blessed.

(C) He had always tried to live accordingly, treating each day as if it were his last. When that turn finally came, he left this world as calmly and with as much dignity as he had shown in every hardship.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Like Cato's, Musonius's sense of justice spared no one. Around 70 AD, shortly after the civil war, he brought charges against a fellow Stoic, Publius Egnatius Celer, a man who had informed on other Stoics to Nero. Demetrius the Cynic defended Celer, yet Musonius won a hard-fought victory at a time when justice was scarce. As one of his sayings explains, when we do good with effort, the effort fades but the good stays. He must have known the case would carry a price, since attacking an emperor's informer was dangerous whatever the verdict. Before long, Vespasian exiled him for three years.

→ Musonius pursued justice against a fellow Stoic even though doing so was (A) _____, because he believed that the (B) _____ of a right action outlasts the toil it requires.

① risky …… good
② safe …… good
③ risky …… pleasure
④ profitable …… shame
⑤ safe …… reward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8)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Musonius Rufus, called the Roman Socrates by people of his time, argued that women should be taught just as men were. In 65 AD Nero banished him to the island of Gyara, where one source says he found an underground spring. After Galba took Nero's place in 68 AD, he returned to Rome, and later the former slave Epictetus became his student. Around 70 AD he prosecuted Publius Egnatius Celer, an informer whom Demetrius the Cynic defended. Vespasian then exiled him for three years. He taught freed slaves and a Syrian king alike.

<QUIZ>

(1) What did people of his time call Musonius?
Answer for (1): _____

(2) To which island did Nero banish Musonius in 65 AD?
Answer for (2): _____

(3) What did Musonius find on the island, according to one source?
Answer for (3): _____

(4) Who succeeded Nero in 68 AD?
Answer for (4): _____

(5) Is it true or false that Musonius believed women should be educated as fully as men?
Answer for (5): _____

(6) Which former slave became Musonius's student?
Answer for (6): _____

(7) Whom did Musonius prosecute around 70 AD?
Answer for (7): _____

(8) For how many years did Vespasian exile Musonius?
Answer for (8): _____

<보 기>

A. Galba	N. four
B. Vitellius	O. Barea Soranus
C. Rome's Iron Man	P. Vespasian
D. Demetrius the Cynic	Q. Gyara
E. the Roman Socrates	R. Arulenus Rusticus
F. False	S. twenty-one
G. Syria	T. Publius Egnatius Celer
H. Epaphroditus	U. an underground spring
I. Epictetus	V. Volsinii
J. Titus	W. seven hundred
K. a canal	X. Domitian
L. True	Y. three
M. Sinope	Z. Nero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그는 트라세아가 네로 아래에서 겪은 시련이 즐거워 보일 만큼 험한 삶을 견뎠다. (so ~ as to V / make + O + 원형)

02 그는 그런 것들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은 듯하다. (Nor + 도치 / 삽입절 it seems)

03 그들은 철학자의 말이 아니라 피리 연주자의 공연을 듣고 있는 것이다. (not A but B / hear + O + -ing)

04 덕을 향한 타고난 성향을 지닌 것은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도 그렇다. (It is ~ who 강조구문 / not A alone but B also)

05 무소니우스 가르침의 핵심에는 고된 노동이 중요하다는 믿음이 있었다. (장소 부사구 문두 도치)

06 서기 60년 플라우투스를 따라 시리아로 망명길에 오른 사람은 바로 무소니우스였다. (It was ~ who 강조구문 / accompany(타동사))

07 살아서 많은 이에게 쓸모 있는 사람은 죽기를 택할 권리가 없다. (of + 추상명사 = 형용사 / One who ~ + 단수 동사)

08 유배가 아무리 나빠도, 네가 그렇게 택한다면 그것은 너를 더 낫게 만들 수 있다. (As + 형용사 + as + S + V(양보))

09 지혜로운 사람을 그가 타고난 삶에서 밀어낼수록 그는 그쪽으로 더 기운다. (the 비교급, the 비교급)

10 그의 태도는 누가 권력을 쥐든 무관심한 것이었다. (보어 to부정사 / be indifferent to + 명사절)

11 무소니우스는 켈레르를 단죄하는 일에 대가가 따르리라는 것을 알았음에 틀림없다. (must have p.p.)

12 네 가지 덕으로 나아지지 않을 만큼 높거나 낮은 자리는 없다. (no + 명사 + so ~ that ... not)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무소니우스의 출생 · 출신 · 사망(표지)	
태어난 계급 / 태어난 시대 / 동시대인이 부른 이름	
그를 높이 언급한 그리스도인 두 사람 · 황제 / 그와 달리 로마 사회의 꼭대기를 즐긴 두 사람	
성공한 철학자의 표시 / 박수받는 철학자의 비유	
가장 도발적인 믿음 / 남은 강의 수 · 관련 강의 수 / '아름다운 결합'의 부부	
같은 바탕의 사람 / 그가 공부를 이어 간 방법	
첫 시련의 원인 / 함께 망명한 사람 · 해 · 장소	
플라우투스에게 한 조언	
기아로스 추방의 해 · 계기 / 고향과의 거리	
섬에서 찾은 것(한 기록) / 허구 편지의 주인	
운하 일화의 인물 / 믿기 어려운 까닭	
유배로 철학자가 된 사람 / 그가 머물지 않은 곳	
로마에서 일부러 찾은 것 다섯	
귀환을 허락받은 때 · 황제 / 사기꾼에게 준 돈	
사절로 함께 간 사람 / 기록한 역사가	

항목	답
기소한 동료 스토아 / 그 변호인 / 그가 처형에 가담한 스토아	
베스파시아누스의 유배 기간 / 세 번째 유배지	
유배에서 부른 사람 · 해 / 도미티아누스가 죽인 사람들	
네 가지 덕 / 끝까지 빼앗기지 않은 것 / 산 나이	

4-3. 통합 사고 문제 — 20장과 23장을 잇는 자리

문제

20장에서 타키투스는 플라우투스에게 용기를 내 죽음을 기다리라고 조언한 무소니우스가 그의 망명길에 동행했다고 시사하고(151쪽 ¶4), 플라우투스가 군대를 일으키지 않은 데에는 무소니우스의 또 다른 조언이 작용했을지도 모른다(152쪽 첫 줄). 23장의 무소니우스는 기아로스 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살아 공부했으며(167쪽 ¶4~¶6), 그의 단편과 마지막 모습은 삶의 길이에 대한 그의 생각을 보여 준다(171쪽 ¶7 ~ 172쪽 ¶1). 두 장에 공통으로 드러나는 무소니우스의 기준을 아래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두 장의 원문에 모두 나오는 영어 한 단어로 쓰고, 플라우투스에게 한 조언과 기아로스에서 그 자신이 한 선택이 어떻게 같은 기준에서 나왔는지를 영어 두 문장으로 설명하시오. (각 문장에 20장 또는 23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무소니우스의 기준: What matters is not how long one lives, but whether one lives and dies _____.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